K

P

A

한국화예술

Korean Painting Art

2024년 통권 제31호



표지 제자 - 박방영

표지 작가 - 오송규作 **달밤의 소요 2023-1** 70x126cm. 화선지에 수묵 2023

K
P
A

한국회화

Korean Painting Art
2024년 통권 제31호

완주작가 탐방 및 한국회화 작가와의 대화

2024. 11. 27 PM 3시~
박종갑, 윤대라(완산가)
이철량/정미현작가 작업실

한국회화展

2024. 11. 27(수)-12. 08(일)
Opening_ 2024. 11. 27(수) PM 2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누에아트홀 1, 2전시실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19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063-246-3953)

이천이십사년 11월

제31호
한국회화회

Korean Painting Art

● '한국회화회'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의욕적인 작품활동의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지역의 작가들과 교류 및 전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회화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한국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삼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 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님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2020. 12 통권 27호 발행
2021. 8 편집위원회 (회화지 논의)
2021. 10 정미현회원 작업실 방문
2021. 10 회화회 청년 작가 좌담
2021. 11. 24 통권 28호 발행
2021. 11. 30-12. 7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2. 4. 정기모임 및 이호억작가 작업실 방문
2022. 5. 편집위원회의(회화지 논의)
2022. 9. 미술기행(프리즈, 키아프 전시)
2022 신입회원(권기철, 손다운, 손종민, 최지우)
2022. 12. 통권 29호 발행
2022. 12. 6-12. 13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3. 5. 13 파주미술기행 및 박방영 작가탐방
2023. 6. 편집위원회의 1차회의
2023. 6. 회화회지 발행 및 전시운영 협의회
2023. 9. 전시 및 포럼 운영회의
2023. 신입회원(정진웅)
2023. 12. 통권 30호 발행
2023. 12. 13-12. 18 정기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 서울)
2023. 12. 13-12. 14 비전23, 한국회화 포럼개최(양평 블룸비스타호텔)
2024. 2. 2 연간활동계획 운영위 협의회
2024. 3. 29 경주미술기행 및 박대성작가탐방
2024. 7. 1- 9. 30 양평 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한국회화
2024. 7. 2- 7. 3 양평 블룸비스타 전시 참여 및 지역 전시 탐방
회화지 발간 및 정기전 협의
2024. 11. 한국회화회지 통권 31호 발행
2024. 11. 27-12. 8 정기전(완주 누에아트홀 기획초대전)

CONTENTS

2024 오늘의 작가

04 권기철
05 김준근
06 김지연 (가 득)
07 박두리
08 박방영
09 박성수
10 박종갑
11 박지예
12 방정엽
13 손다운
14 손종민
15 송화정
16 오송규
17 유예빈
18 윤대라
19 이승훈
20 이지이
21 이철량
22 이호억
23 임 효
24 임희성
25 정미현
26 정진용
27 진희란
28 최지우

2024 전시 리뷰

30 개인전- 정진용(해체주의)
31 개인전- 권기철(의미없는)
32 개인전- 이지이(밤의 이방인)
33 개인전- 이호억(다만 깊어질 뿐)
34 개인전- 진희란(산로-서울순성)
35 개인전- 박종갑(만경 생명의 강)
36 개인전- 박성수(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37 개인전- 박종갑(四方書(사방서))
38 개인전- 윤대라(비키니소다 - 최종병기 그녀)

특별기고

40 필 + 묵 사유하는 실천
(권기철, 박방영, 박종갑, 이철량, 윤대라)
완주팔괴(박종갑, 윤대라, 이철량, 정진용)
41 현상(손종민, 박지예, 정미현)
누벨백기획전(손다운)
42 알리테무 연구보고서(손다운, 윤대라)
청년작가교류전- 잇다.(손다운, 윤대라)
43 블룸비스타 초대기획전 -한국회화 회원 25명
우아한 돌전(이호억)
44 한국&인도 국제 교류 아트프로젝트(박방영)
45 찾아가는 미술관 소개-공감 선유
46 박지예 논고-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석정 남궁훈
50 이호억 논고-본토(本土)
54 〈특별기고〉 박혜경- Kiaf와 Frieze 공동주최로 인한
미술 시장의 변화와 한국 갤러리와 작가의 대응
56 경주 미술기행 / 박대성작가 탐방

권기철 Kwon Ki-chul



Untitled 170x140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그리고 은밀한 일상의 서사>, <무제>, <의미 없음>

캔버스는 적막하게 나를 압도한다. 간혹 그 앞에서 놀라 길을 잃기도 한다. <어이쿠>, 그야말로 어이쿠를 내지르며 호흡이 멎기도 한다. 불현듯 일상이 아득해져 오고 오롯한 나와 무참히 낯선 나를 동시에 본다.

폭발하는 내면과 침묵하는 평면, 붓을 세운다. 붉고 파란 점, 선, 색채가 각별하고 섬세한 개인적인 것들을 기록한다. 붓의 소리는 은밀하고 더 집요하게 일상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최근의 작품 <그리고, 일상의 은밀한 서사>는 모종의 나의 길을 내는 흔적이며, 나아가 <무제> 또는 <의미 없음>등은 온몸이 붓이 되어 생각조차 지우고 싶은 '의미 없어도 괜찮은' 혹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들이다.

경북대학교 미술과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제주국제비엔날레, 트라이튜미술관(미국),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일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로미술관등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KIAF, DIAF, BAMA, MANIF, 상하이엑스포, 서울아트페어에 출품하였다. 미술로 보는 스포츠와 놀이전, 스펙트럼-리듬 조형 교감전, 남도문화 음식기행전, 서울현대한국화전, 한국화동질성회복전 등, 1993년부터 파리, 도쿄,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60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구미술관 (대구), 이중섭미술관 (제주), 인당미술관 (대구),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정부종합청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국회의사당(서울), 국립국어원 (서울), 동양엘리베이터 (서울), 대구시청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대구)대구은행본점 (대구), 현대중공업 (울산), 포스코포항제철 (포항),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검찰청서부지원 (대구), 달서문화재단 (대구), 도서출판재원 (서울), 601 비상 (서울), 칼레이트 CC (대구) **출판물** 금세기 미술산책 권기철, 주노아트, 2008, 바람 소리 권기철, 601 비상, 2010,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14, 권기철, 인당미술관, 2014, 세상을 그리다, 달서문화재단, 2017,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22
M.P_ 010-2521-1431 E-mail_ tokipul7daum.net www.instagram.com/kwon_kichul

김준근 KIM Jun-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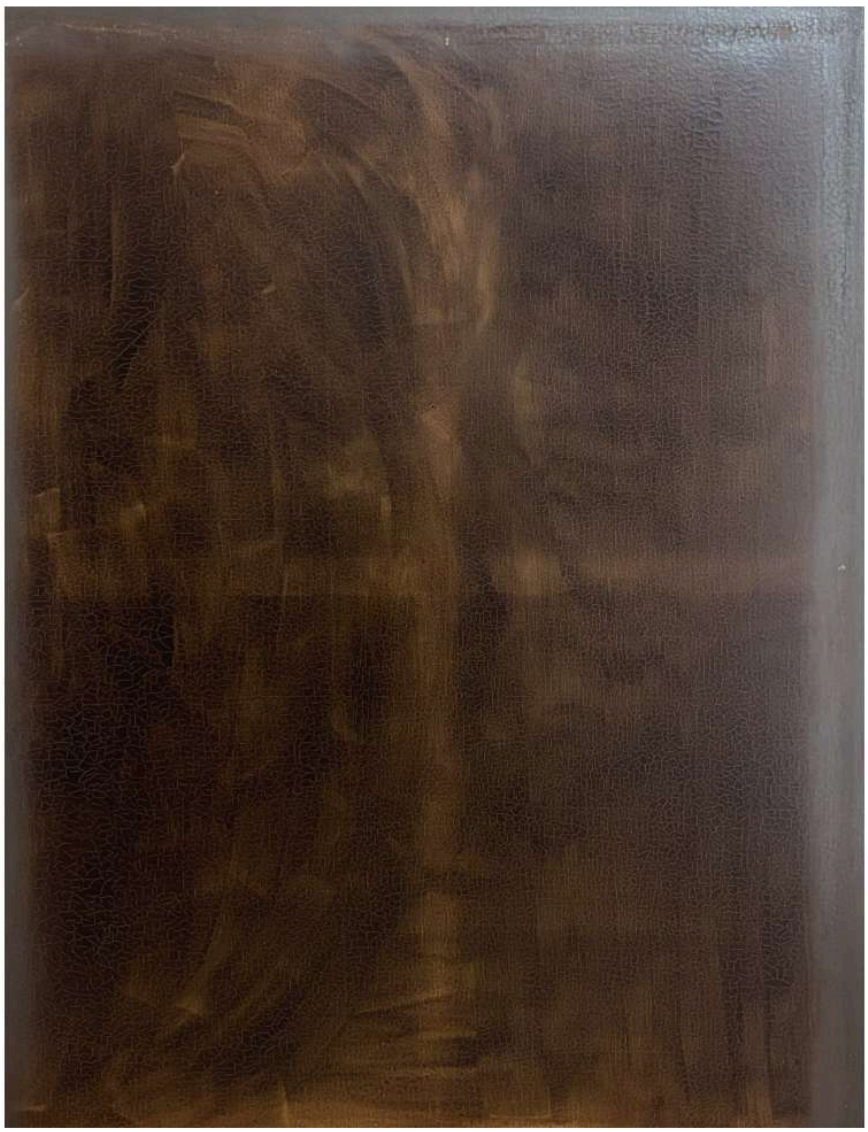


기억여행 2024 50x117cm 마천, 석분, 토분, 담채 2024

유년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꽃밭을 오늘도 조용히 들여다 본다. 이러한 유년의 기억들이 한송이 한송이 자연스러운 선묘와 형상들로 다시 화면을 통해 마주한다. 석분과 토분을 바탕으로 화면에 새겨지고 스크레칭 되어 유년의 기억들을 소환하고 있다. 생성과 소멸의 수용체인 석분과 토분은 자연 순환의 매개체로 차용되었고, 화면에 표현된 소재들은 자연 친화를 통해서 자연스레 마음깊이 저장된 나만의 일기장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25회(metalos/파리,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서일본컨벤션센타/일본),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 한국대산관 문화원)
현)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M.P_ 010-2426-2632 E-mail_ nature@cbnu.ac.kr

김지연 (가 득) Kim Ji-yeon (Gade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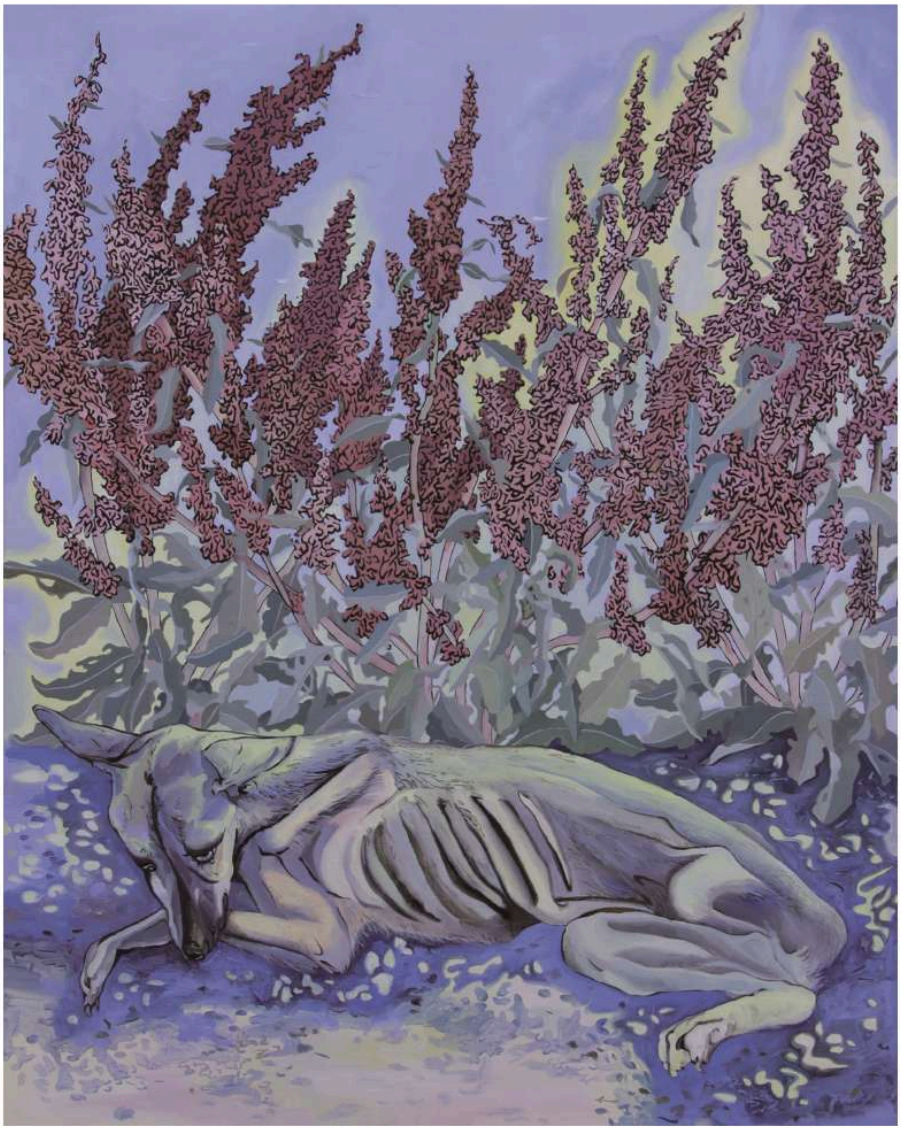


Passover 117x90cm 캔버스에 칠, 차량용 스프레이 도료 2023

인류의 의해서 시각적, 기능적 변이를 가진 자연이 과연 숭고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자연이 품어온 시간을 바라보며 나의 시간을 그 위에 더하는 일'을 통해
'변이 된 자연의 숭고미' 를 찾으려 한다. 나는 지각할 수 없지만 인지할 수 있는 불변적 존재를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가공되는 지각의 현상으로 보고 인식해 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작업은 천연도료인 옻칠을 캔버스 위에 사용하였다.
옻칠의 전통적인 사용기법에서 탈피하여 공예적 소재를 지극히 개인적인 회화적 소재로 사용하였다. 평면 캔버스 위에 보이는 붓의 힘과 표면의 갈라짐을 통해 시간의 힘을 가진 대지의 모습을 시각화 하였다.

2020 University of Brighton, Brighton, United Kingdom (Fine Art MA)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서울, 대한민국, 중퇴 2013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서울, 대한민국
개인전-2022 삶의 파장, 쿠마, 서울, 2020 메마른 영혼과 피폐한 마음에 다시 사랑이 시작되기를, 갤러리 아미디, 서울, 2018 삶의 파도,공간:일리, 서울, 2016 삶의 파장, 커피식탁, 서울 2015 가득, 샐모네치킨, 서울 **온라인 개인전**-2018 가득 김지연전, 아트허브 갤러리 **커미션 작업**- 매거진 럭셔리 2019 6월호 _ Cosmetic + Art (NARS 협찬) **그룹전**-2023 마주함에 대하여, 카페꼼마X갤러리아미디[여의도], 서울, 2023 에레츠, 갤러리아미디[한남], 서울, 2023 원시인접착제, 스페이스카다로그, 서울, 2023 지금의 뿌리, 일백헌갤러리, 서울, 2022 A&E, 카페꼼마X갤러리아미디[신사], 서울, 2022 담양아트위크, 담주 다미담예술구, 담양, 2022 사이세상,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21 다시걷다, 혜화아트센터, 서울

박두리 Park Du-ri



미식견의 하루 90.9x72.7cm Oil on canvas 2023

언어의 한계성은 한낮의 꿈을 꾸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충족되는 비현실적인 세계를 형성한다. 그때 비로소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온전히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지점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 순간의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허구가 개연성을 통해 보편성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0 / 긍정적 뜨내기 / 신세계갤러리 / 광주, 2019 / Fragile / 경성방직 프로젝트 / 서울, 2018 / 경계의 모양-집합B / 아트스페이스 오 / 서울, 2017 / CONTE / 갤러리 밈 / 서울
수상/레지던시-2013 대구예술발전소 13기 입주작가, 2022 인카네이션 예술상, 2022 달천예술창작공간 2기 입주작가, 2020 경남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2019 대만 타이베이 관두미술관 KdMoFA 파견예술인, 2019 신세계 미술제 신진작가상, 2019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8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박방영 Bak Bang-young



和氣作祥雲(화기작상운) 67x133cm 한지위에 혼합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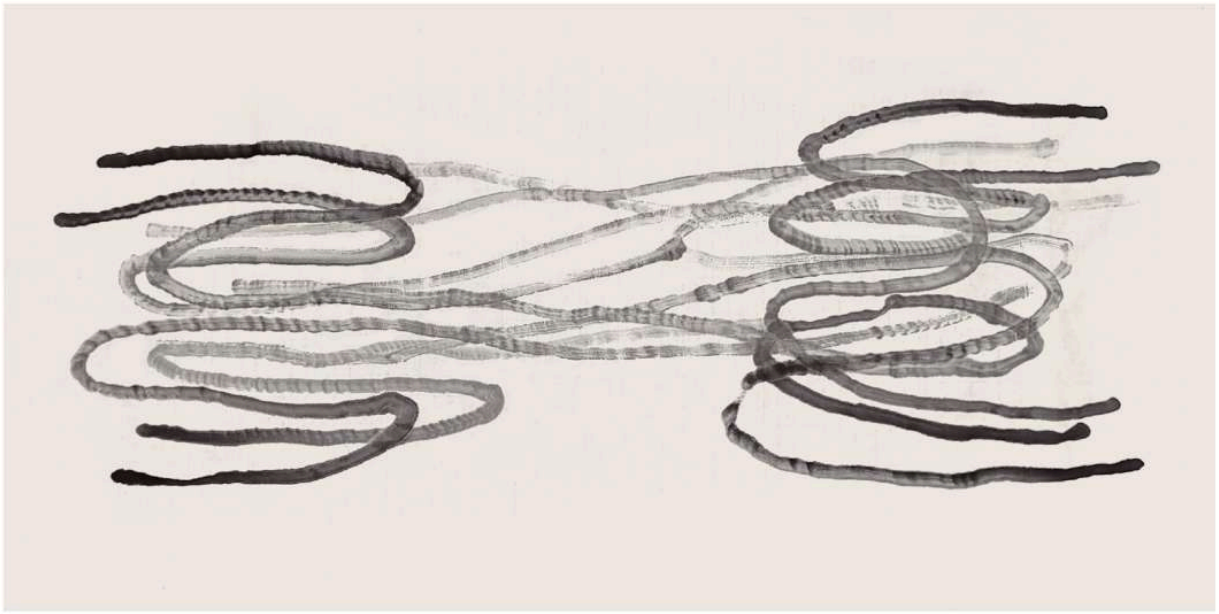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진 것이다. 옛 글 중에 관물지외물(觀物之外物)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DNA, 활동성,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가 보는 것과 조응하면서 자신을 기억 <REMEMBERING. Re(다시)-Member(조직하다)>해 내는 것이다. 다시 조직해가며 자기 찾기를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내 인생 길에서 인연 만남 체험했던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이다.

나는 획으로 지지체를 삼고 작업을 한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예, 서법으로 전국대회 최고상을 탔던 만큼 획에 대한 느낌을 잘 알고 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서예의 필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동양의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밧줄 같은 둥근 입체성을 가진 것이다. 획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획을 통해서 삶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자연과 인간 어릴적 즐거웠던 기억들.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서 살고 싶은 본래의 고향(본향). 우리가 예로부터 가져왔던 우리 것. 역사와 전통, 해학, 고졸미, 원시성, 영적 진화와 민화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에 운세를 만들거나 발복, 건강 등의 바램도 그리곤 한다.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바램이나 선언을 실체화 시켜 당겨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그리다, 사랑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그리워한다는 의미는 바램(에너지)을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끌어온다. 사랑을 끌어온다는 말이다. 그림은 바라는 일, 즉 보다나은 삶을 끌어 오는 행위이며 꿈, 사랑, 바램을 실체화 시키는 일이며, 영적 진화를 이뤄가는 길이다.

나의 그림은 일필휘지로 기운생동 하게 분출하듯 한지위에 먹과 펄 아크릴을 혼합해서 그림을 그린다. 한지는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가 있어 위로만 쌓이는 캔버스와 구별된다. 보다 동양의 정서에 어울린다. 나의 그림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고 깊은 삶으로 이끌 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및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2024 만경(萬頂) _생명의 강 (복합문화지구 누에) 2023 만경(만경) 초대전(오모크갤러리/칠곡), 2022 겸재 맥 초청기획展(겸재정선미술관/서울), 2017 월전문화재단 선정展(寒碧園한벽원미술관/서울), 2013 ARTIST FROM KOREA(카스트시립미술관/카스트시/독일) **단체전, 수상 및 선정**-국내, 외 개인전 24회 및 기획, 초대전 300여회 참여, 2024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재정선미술관),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대흥사)/ 세계혁명미술전(삼성문화관), 2022 제주비엔날레(제주도립미술관)/ 막간展(전남도립미술관)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홍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20 필묵지간筆墨之間(駐)홍콩한국문화원), 2019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奉贤博物馆/상해)/ 동경국제展(동경도미술관) **수상**- 송은미술상(송은문화재단), 이당미술대상(운보문화재단) 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소장
M.P_ 010-3793-2689 E-mail_ namu42@khu.ac.kr

박성수 Park Sung-soo



봄날, 3시에 본 비둘기 70cm x 135cm 화선지에 수묵 2004

지금에 나는 이 전까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아주 먼 옛날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법한 동물들과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주위의 존재들을 선별하여 합성을 한 듯 그림을 그려 보았다. 더불어 한명의 인물이 그려진 수묵화에서 또한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시적인 면과 선들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2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및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3 촉각공간, 공간시은, 전주 외 13회
수상경력- 2016 전북 청년작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2 해외교류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2009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 2008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전주문화재단 , 2007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우진문화재단
레지던시-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경기창작센터(2014~201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박종갑 Park Jong-g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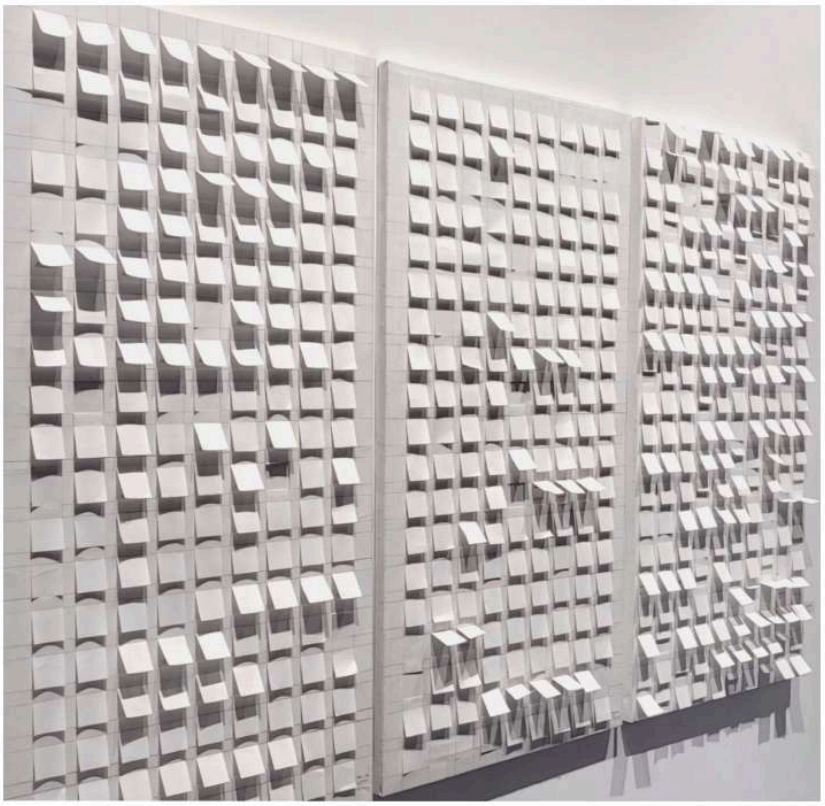
상운(象運) 76×144cm 순지, 산마필, 유연묵 2021

현대의 인류는 과학발전이 이루어내는 속도와 변화에 숨 가쁘게 적응해 가고 있으며 지구적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지극히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

물질문명은 생활의 편리를 주고 있으나 인간적 삶은 언제나 불안과 번민으로 가득 찬 형국이다. 과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오늘날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문화가 타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번민에 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천인합일(天人合一)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신적 근원의 의미들을 되새겨 본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및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2024 만경(萬頂) _생명의 강 (복합문화지구 누에), 2023 만경(만경) 초대전(오모크갤러리/칠곡), 2022 겸재 맥 초청기획展(겸재정선미술관/서울), 2017 월전문화재단 선정展(寒碧園한벽원미술관/서울), 2013 ARTIST FROM KOREA(카스트시립미술관/카스트시/독일) **단체전, 수상 및 선정**-국내, 외 개인전 22회 및 기획, 초대전 300여회 참여, 2024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재정선미술관),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대흥사)/ 세계혁명미술전(삼성문화관), 2022 제주비엔날레(제주도립미술관)/ 막간展(전남도립미술관)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홍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20 필묵지간筆墨之間(駐)홍콩한국문화원), 2019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奉贤博物馆/상해)/ 동경국제展(동경도미술관)
수상- 송은미술상(송은문화재단), 이당미술대상(운보문화재단) 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소장
M.P_ 010-3793-2689 E-mail_ namu42@khu.ac.kr

박지예 Park Ji-ye



The one 70x138cm 종이에 연필과 담채 2024

내 작품의 주제는 THE ONE 이다. 여기서 THE ONE은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무언가의 변형가능한 시기부터 초월적 세계를 지향한다. 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해 나아간다. 이번 전시의 주제 THE ONE의 의미는 나의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선(善)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의 목표이다. 초월은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을 숫자 0-9의 반복적 패턴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모든 숫자는 1에서 시작하여 1로 수렴된다, 여기서 숫자 1은 단지 1일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Aleph)"를 말한다. 알레프는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공간상의 지점으로 전체우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꿈꾸는 존재이다.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옆집여인"시리즈 작업을 꾸준히 하였다. 화면 속 여인들은 나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작업의 스토리를 통해 갈망과 연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현주의적 방식에서는 본질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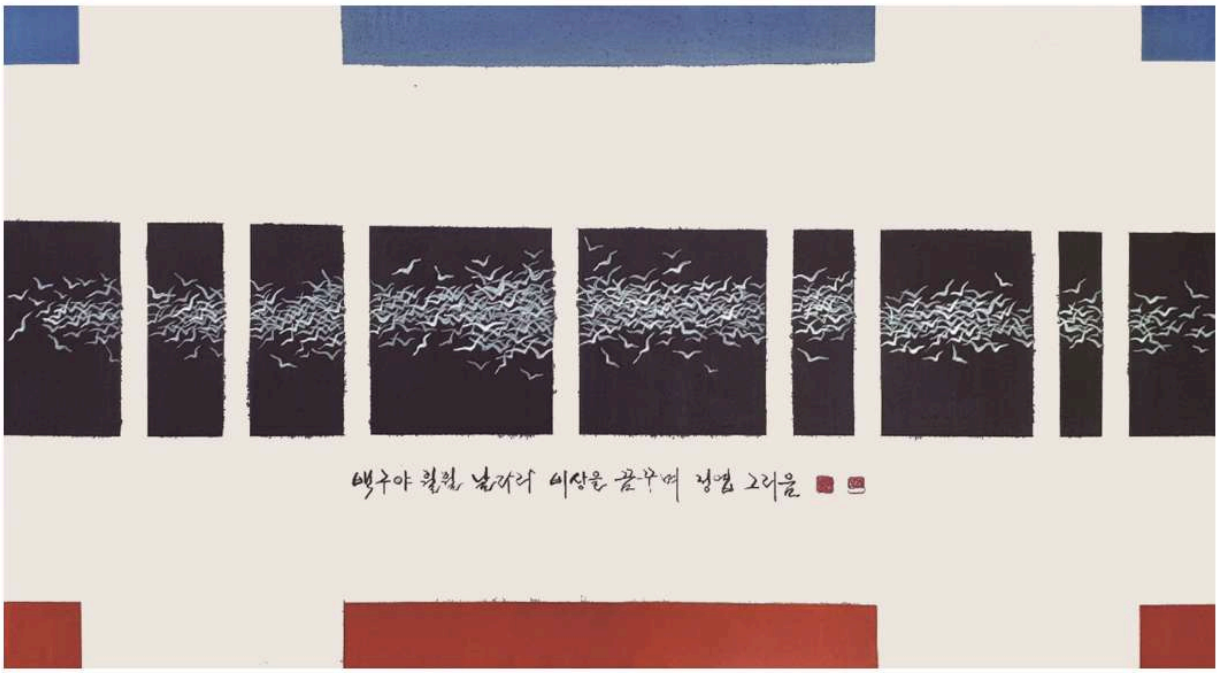
내가 "나"라는 이 현상이 신비롭기 그지없다. 또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상상해 낼 수 있다. 현재 삶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기계문명은 소비 사회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간다. 나는 현재의 부당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THE ONE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내 삶에서 어떤 떨림(울림)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진정한 성찰를 통해 THE ONE의 의미를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며 어떤 행위나 현상으로 나를 발견하는 방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번 작업은 전통 한지와 자, 연필 등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THE ONE의 형식은 인간의 감정구조는 누구나 같은 배열과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내 작업에서 0-9의 숫자와 반복적 패턴과 선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런 방식을 같은 크기와 간격을 두고 나열하므로 무한 반복을 연상케 하고 싶었다. 결국 대상의 표상은 실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경험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상 삶은 시작과 끝이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영원"이라는 믿음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사후세계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록으로 남겨 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숫자의 의미 "알레프(Aleph)"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자와 숫자를 심오한 우주적 의미와 연관시키는 신비로운 전통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숫자는 무한을 상징한다.

THE ONE의 형식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같은 크기로 자르고 배열하였음에도 이들은 모두 미세한 차이가 생겼다. 닮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같지 않다. 우리가 소유한 것도 근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믿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답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대학교 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박사(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개인전 1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경력 다수
전)근현대사미술관 담다(부관장), 국립전주박물관 한국화교실 강사, 전북대박물관 전문연구원,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대, 충북대, 원광대 강사
현) 전북대 강사
E-mail_ pjy7822@hanmail.net artcelsi.om/parkjiye

방정엽 Bang Jeong-yeop



천지인(天地人)-비상(飛上)을 꿈꾸다 60x110cm 캔버스천+수묵채색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 하나 들고 나는 것에
무슨 흔적이 남으랴만은
생명 하나 하나에게는 우주의 모든 것으로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날개 짓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나는 길 위에 서 있다.
나만의 소우주에서 걸어온 길이 잘 걸어온 길인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 넓은 세상의 한 공간에서
나비효과를 꿈꾸며
몽상가로 또 다시 길을 나선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 및 다수의 그룹전과 기획전에 참여함
현)한국회화회 회원

손다운 Son Da-un



흐름 116.8x80.3cm 장지에 수묵 2024

나의 내면에는 현실과 분리된 '독립적 세계'가 존재한다. 그 안에는 흐려진 기억들이 얽힌 채 복잡한 회로의 연속을 이루고 있다. 나는 연쇄적으로 각인되는 회로속 기억의 형상을 비정형적으로 구성하여 이미지화시킨다. 구성된 이미지는 혼돈 속에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식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재가 되는 의식과 완성된 의식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국립 전북대학교 미술학부 졸업, 국립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과정 중
개인전-2022 예술공간 결 기획 초대전 '손다운 개인전 [빈자리]'/ 예술공간 결/ 전주, IST SOLO EXHIBITION THE REST OF A FAIRY / 누벨백 미술관 / 전주
단체전-2024 '지긋-이 3인 전/비화실/ 전주, 세오갤러리 X 화인페이퍼갤러리 '구부러진 미제스의 눈' 기획전/ 세오갤러리 / 서울, 2023 한국회화회 정기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 서울 W미술관 기획전 사라져가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 W미술관/ 익산, 2022, 함께 바라보다 / 이당미술관/ 군산 제 29회 전북회화전/ 누벨백미술관 /전주 다시 돌아온 봄/ 신공간 갤러리 / 서울, 2021, 청목 신예작가 초대전/ 청목미술관/ 전주 젊은 고뇌, 서로를 잇다' 누벨백 미술관 특별전/ 누벨백 미술관/ 전주 제30회 신예작가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CFANTASY 2인전/ 누벨백 미술관/ 전주, 2020 SWEET AFTER BITTER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M.P_ 010-3063-5878 E-mail_ ekdnsson20@naver.com

손종민 Son Jong-min



Portrait 120x91cm korean ink on oreantal paper 2021

자화상 작업은 가식을 걷어내는 일종의 고해성사(告解聖事)이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작품 속 자신을 매개로 진실에 접근 할 려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상기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과정이다.

작품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진실이 아닐까 한다. 예술가는 진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실을 갈망하며, 모든 경험을 초월함으로써 작품 속 그 갈망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모든 작가들이 작품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작업을 하는 중 진리를 조금이나마 찾았다고 믿는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個人展-2023 손종민 "독백"展. 미광화랑, 2021 손종민 "portraits"展 - 부산 화인 갤러리, 2019 손종민"사람(people)"먹그림展- 화인 갤러리, 부산
2019 손종민 "사람"먹그림展- 인사아트센터,서울, 2017 손종민 "사람들" 먹그림展 - 화인갤러리,부산, 2017 손종민 개인展- 남해 바람흔적 미술관, 경남 남해
2016 손종민 먹그림 展 - 해운아트 갤러리,부산
Email_ yasul2000@hanmail.net.

송화정 Song Hwa-jeong



바람이 데려온 순간 136x70cm 한지에 수묵 2024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의 인상이나 감동을 나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내 등을 살짝살짝 밀어주며 함께 걷던 햇살과 그늘 속 바람에 흔들리던 잎새들... 내가 마주한 자연의 모습에서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잇고 부풀리고 생략하며 모필 특유의 선과 담묵의 번짐으로 내재된 기운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싶었다.

삐뚤어진 선과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를 수없이 반복한다해도 거기서 다시 모색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쯤 발견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2023 동행, 일곱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2016~2023 건지회 정기전시회 (전북예술회관, 학아트센터), 2017~2023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인사아트센터 6전시실),
2023 군산대 하모니전 (군산대학교미술관), 2022 동행, 다섯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2022 다시 돌아온 봄 Group전 (서울 시공간화랑), 2019 '여유 먹빛을 보다' 3인전 (누벨백미술관)
E-mail_ ilikegogh@hanmail.net

오송규 Oh Song-gyu



소요2024-5 84x126cm 화선지에 수묵 2024

수묵작업을 해오면서 수묵의 본연의 먹색을 찾고 발현하기 위해 애써왔다.

먹이 가지는 유연한 색감이 좋아서다. 물과 먹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조화는 항상 나를 매료시킨다. 나는 가지 않는 숲길을 동경해 왔다.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 속에 비치는 하얀 길은 나의 사유의 길이다.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 끊임없이 이어진 삶의 길이다. 이러한 길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하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32회 **단체전**- 제27회베세토미술제베이징 전시(북경민족문화궁전/중국), 청주미술협회 회원전(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청주), 동서미술문화학회 회원전 이미지의 경계 시대와 일상전(한벽원미술관/서울), 2019북경비엔날레, 2019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뭄바이 비엔날레(뭄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청주미술협회 회원
M.P_ 010-3751-2185 E-mail_ sunve@hanmail.net

유예빈 Yu ye-bin



안식 88x67cm

나의 작업은 안식을 위함 탐구 과정이다.
갈등과 갈증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작업을 통해 작은 안식을 찾고 싶었다.
형태의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의 무의식에서 표출되는 감각에 집중하려 했고,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고요하면서도 미묘한 역동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및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2022. 다시 돌아온 봄. 신공간갤러리. 서울, 2020.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전주, 2019. 여유,먹빛을 보다. 누벨백미술관. 전주, 2019.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전주 , 2019. 보이는 감각. 익산예술의전당. 익산, 2018.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전주 , 2017.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전북예술회관, 전주

윤대라 Yoon De-ra



비키니소다 뾰로롱팡팡 131x66cm Mixed media 2024

'비키니소다'는 2008년 어느 날의 드로잉일기 속에서 태어난 캐릭터이다. 귀여운 얼굴과 우아한 몸매의 소유자인 '비키니소다'는 그 동안 도계와 선계를 유람하고,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최종병기 그녀'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비키니소다'는 천진한 모습으로 세계와 조우하며 장대한 서사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발칙한 상상과 함께 유희하고, 그러는 한편 유연하게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2024년 비키니소다의 새로운 뾰로롱팡팡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비키니소다의 슈퍼파워숑숑에너지를 받아
소망하는 그 마음 이루어질지어다.
뾰로롱팡팡!!!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4회 / 기획 및 단체전 250여회
완주팔괴(복합문화공간 누에),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재정선미술관), 이 땅에 새 숨 展(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계혁명예술제(삼성아트홀), G20書畵刻 展(한벽원), 필묵지간展(홍콩 한국문화원), 아시아-쌀 展 ,탄생 誕生 展 (양평군립미술관), Hongkong Art Work(홍콩), 서울국제아트페어(KOEX), 아트아시아(KOEX), 정글project, 전통과 새 감성(울산현대예술관), 畵歌-그리기의 즐거움展(한원미술관), 소재와 기법-전통을 보는 눈展(선바위미술관), project이름(미국,홍콩,태국 등)

이승훈 Lee Seung-hoon



생(生) 100x50cm 지본채묵 2024

태어남은 함부로 발생하지 않는다. 생은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토끼풀은 어디에도 자라고 어디선가 함부로 짓밟힌다. 목초의 먹이나 거름으로 쓰이지만 길에서 공터에서 만나는 풀이다. 현대 생활에서 자연의 녹색을 꿈꾸는 동시에 그 가치를 서서히 인정하면서 민들레와 질경이, 개망초와 쑥부쟁이 등을 접하게 된다. 정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골의 향수를 가진 들풀이다.

길을 가다가 깨어진 보도블록 한 뼘에서 만나는 작은 들풀은 우리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여유로움을 줄 수 있다. 오월 하늘 아래 땅에서 벌어지는 들풀의 살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공유해 봤으면 한다. 그림의 오른쪽 그림자는 종교의 사원 지붕이다. 종교의 역할과 비교 해 볼 수 있는 의미를 지니다.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3회
인물 파노라마전, 전북나우아트, 군산아트쇼 등 참가, 미술문화칼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외1 출간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회화회, 아트회, 현대미술드로잉회, 전북수묵회 회원
M.P_ 010-4115-0577 E-mail_ misege@hanmail.net

이지이 Lee Ji-Y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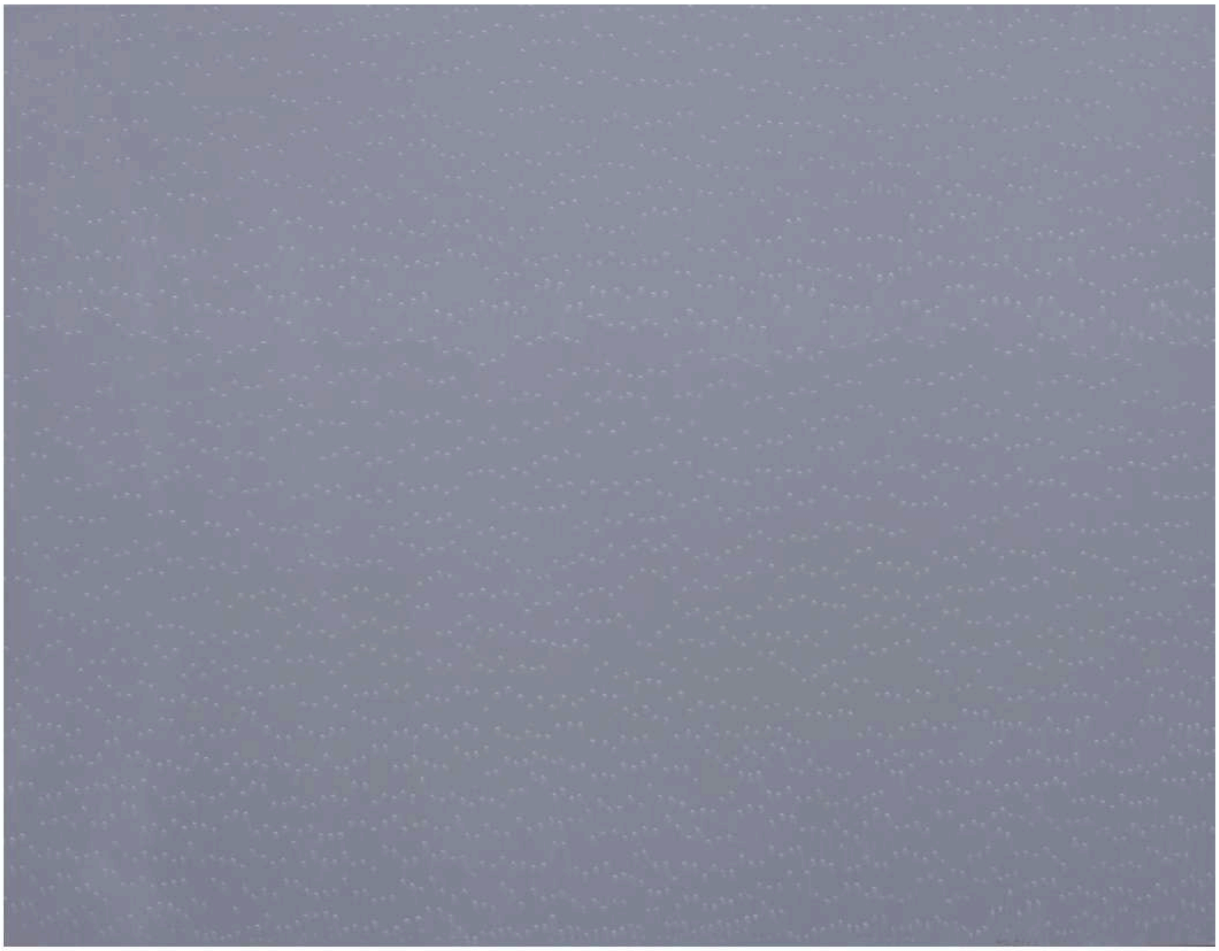
밤의 이방인 N.2 112x85cm 4합 장지에 수묵 한지, 비단, 꼴라주 2024

오랜 해외생활로 자신의 처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내면에 생성된 불편한 감정이 이주와 이민자, 이방인의 입장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의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듯 나의 작업은 어디에서도 소속되지 못한 찝찝한 불편함을 대면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성된 불편한 감정을 창작의 제작행위를 통해 배설하고 스스로 해소해버린 심리적 초월을 의미하는 '자기화'가 된다. 끝없이 펼쳐진 내면세계에 내뱉지 못한 이물질이 생성되고 배설하는 과정을 작품의 가공과정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찝찝한 불편함'을 그리는 행위는 온전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향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중간자적 삶을 스스로 정화하는 예술적 심미 체험이 작품에서 표출된 것이고,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내면세계를 스스로 형상화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박사 (Ph.D) ,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석사 (M.A) ,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Chinese Painting (B.A)
현) 전북대 출강
최근 주요 개인전- 2024 <밤의 이방인 All the flowing things> 개인전 (한벽원미술관, 서울) , 2023 <환영할 수 없는 환영> 초대개인전 (큐아트스페이스, 파주)
최근 주요 기획전- 2024 <기억의 파도>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획전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부천) , 2023 <동행, 일곱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전북) , 2023 MZ x 뉴미디어 아트페어 (인사센트럴뮤지엄, 서울) , 2023 <지금-여기, 우리는…>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2023 <知畵之樂_ CAFA展>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이철량 Lee Cheol-ryang



Another nature0472 91x116.8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현관을 나가 마당의 작은 풀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아침 해를 맞으려 노력하곤 한다. 허리를 곧게하고 가슴을 펴며 엷은 안개 속을 기웃거린다. 나는 아주 작은 찬 기운이 살아 있는 이른 아침이 좋다. 무언지 알 수 없지만 코 속으로 스며드는 싸한 느낌이 좋다. 이는 내 목을 타고 가슴 속을 돌아다니다가 손끝까지 파고들며 곳곳을 건드려 준다. 이 때마다 풀들과 나뭇가지 끝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본다. 마치 내 호흡을 따라 춤이라도 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무척 행복한 것임에 틀림없다. 내 그림 속에서 그런 시간이 머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2015), HERE NOW(포항시립미술관 2015), 아틀리에 스토리전(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7),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회관 2018)
수묵신작로(광주시립미술관 2020),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1),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제정선미술관 2024)
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호억 Lee H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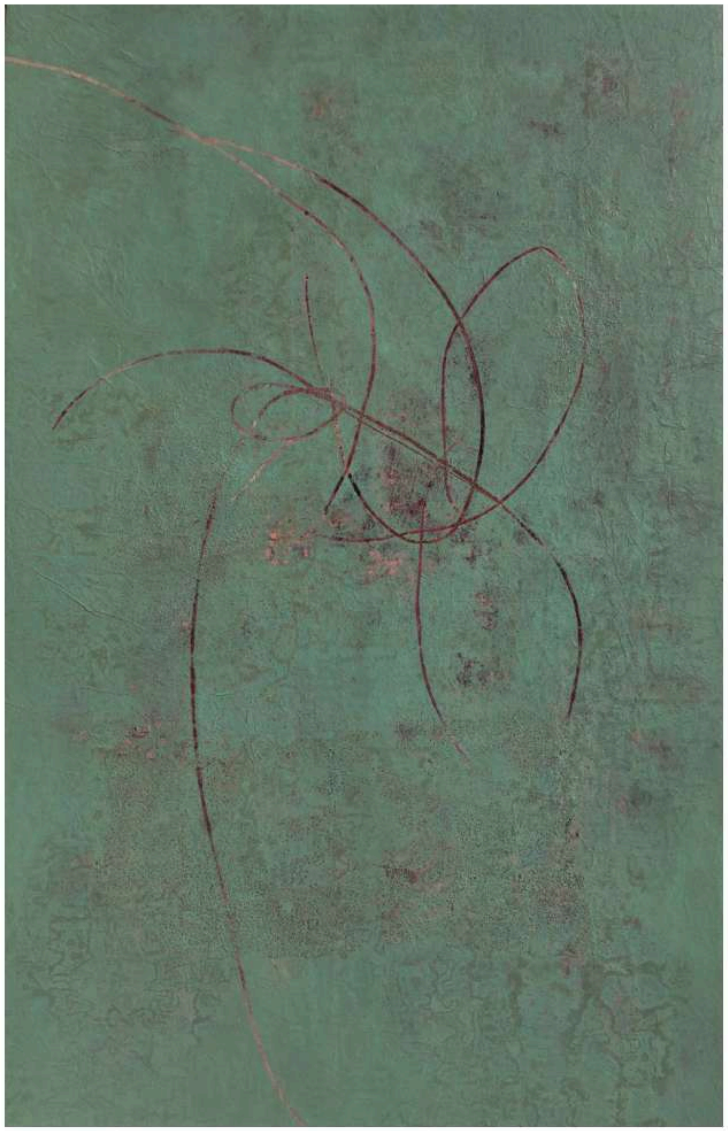


氾濫庭園-선구자를 위하여 210x150cm 장지, 식물성 염료, 묵필, 금박, 그린 곳-진안 2022

선구자를 위하여

2017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2014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학과 201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개인전- 2024 <다만 깊어질 뿐/벌거벗은 마음>, 공간오십오, 대전, 2022 <범람정원氾濫庭園>, 갤러리조선, 서울, 2022 <무진無盡>,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외 9회
단체전- 2024 <R1211 OPEN STUDIO>, OCI미술관 R1211, 서울, 2024 <우아한 돌>,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23 <Break Time>, 갤러리조선, 서울 외
수상/선정-2024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공모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2018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작품 미술은행 공모 선정,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2017 제1회 광주화루 대상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은행, 광주, 2013 제6회 아시아프 선정 작가, 문화역서울284+조선일보, 서울, 2009 제2회 아시아프 선저 작가, 전기무사건물+조선일보, 서울, 2008 제1회 아시아프 선정 작가, 구서울역사+조선일보, 서울 **레지던시**- 2024 OCI미술관 1211R, OCI미술관, 서울, 2022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21 연석산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연석산미술관, 완주, 2020-2021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OCI미술관, 인천, 2018-2019 우도 창작스튜디오, 제주시, 제주

임 효 Rim, hyo



후소산 138x90cm 한지+수묵+감물+옻칠+자개분 2024

繪事後素란 말처럼 그림이 되는 요소가 쌓인 뒤에 그림이 되듯이 厚素山은 하늘과 땅의 만남 인연의 카르텔이다. 작가의 내면에 두터운 요소가 산처럼 쌓여 우연과 필연이 겹쳐지면 비로소 한 획을 그은 그림이 완성된다.

개인전- 30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단체전-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국제전**- 바젤,상하이,이스탄블,파리,피아,쥬리히,한국아트페어 등 참가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주요 콜렉션- 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 미술관, 기당 미술관, 서울 삼성 의료원

임희성 Yim Hee-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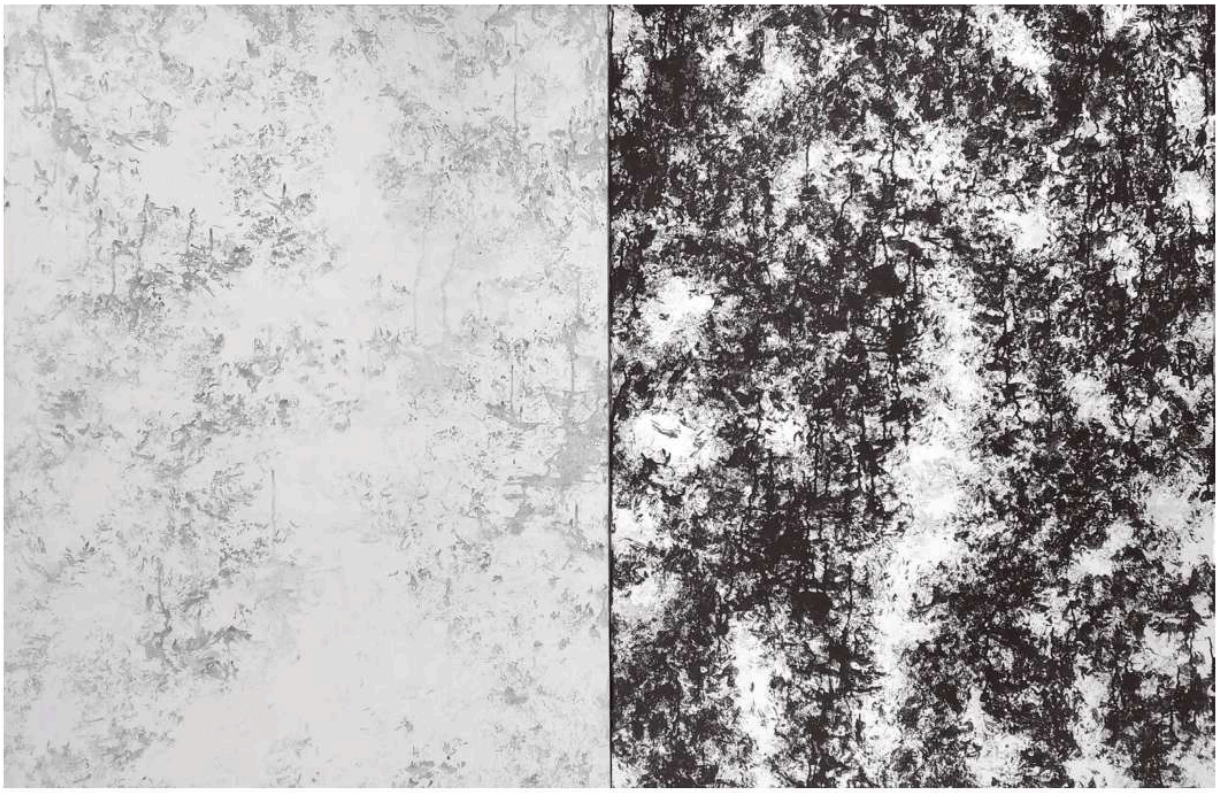


위로의 풍경-Flower16 120x120cm 엠보아크릴보드에 아크릴물감 2022

나의 작업 방식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유추되었다.
하루하루 시간, 경험, 순간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모여 삶이 만들어지듯
색면 하나 하나의 다양한 형태와 색감들이 층층이 나의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삶의 많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 있듯이 나의 그림도 여러 겹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7회, 단체전 50여회
M.P_ 010-4656-7191 E-mail_ iart81@naver.com instagram.com/heeseongyim

정미현 Jeong Mee-hyun



相生 116.8x91cm(x2) 캔버스에 수묵 2024

정미현은 음악이 주는 영감과 감흥의 메시지를 수묵의 감성으로 그려낸다.

강태환 색소폰 프리 뮤직 연주자와의 콜라보 작업을 계기로 음악을 통한 즉흥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소리가 내어주는 이끌림에 화답하듯 수묵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작업의 형식이다. 이번 작품은 '相生'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음악의 감흥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내면을 일깨워준다. 연주자가 전해주는 에너지의 파동은 교감과 울림이 되어 새로운 의식의 세계로 이끈다. 그 의식의 찰나를 수묵의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음악은 깊고 넓은 호흡으로, 자연은 음률의 파동을 타고 수묵에게 이야기를 걸어온다. 하나 되는 순간이 경이롭다.

전북대학교 졸업, 개인전 9회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전환기의 한국화-지성과자각전(서울공평아트센터), 전북미술의 현장전(전북도립미술관), 현대수묵-각양각색전(우진문화공간), 墨香, 먹의 고향에서 피다.(누벨백미술관) , 수묵 동행 6인전(아트비트갤러리 서울), 水墨 時色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서울), 동행, 일곱 개의 별展(누벨백미술관) , 時間(개관10주년 누벨백미술관), 전주국제실크로드미술전(청목미술관)
현) 한국회화회, 건지전 회원
M.P_ 010-3682-3560 E-mail/hyun3560@hanmail.net Instagram/jeongmeehyun21

정진용 Jeong Jin-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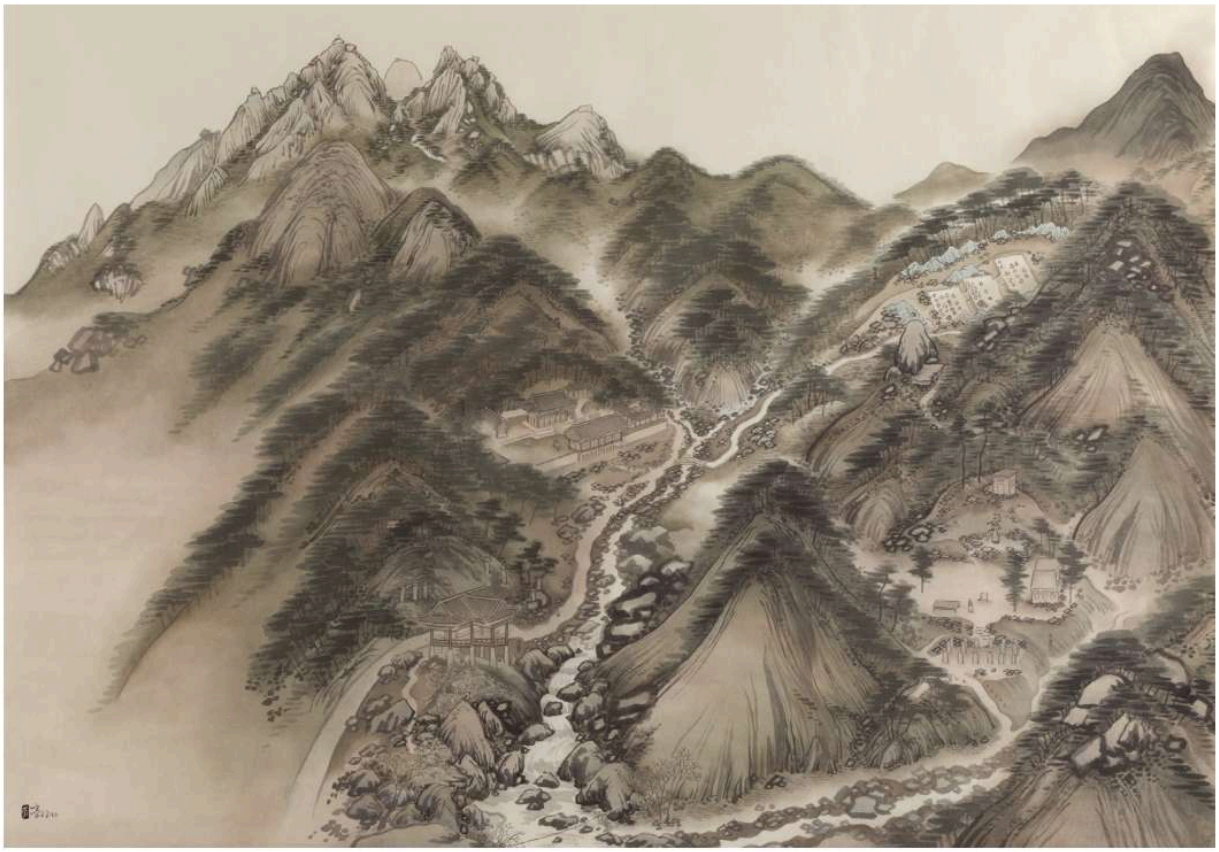


BEETHOVEN 91x73cm K_ink gouache glass micro spheres on fabric 2022

난 베토벤을 정말 좋아한다. 베토벤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곱슬하다. 그의 자세는 준마처럼 도도하며 눈빛은 사자처럼 형형하다. 베토벤의 표정은 마치 지금 폭풍우를 뚫고 쉘터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달빛은 창을 비추고 피아노가 다시 울릴 것이다. 그는 분명 보라색이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1991학번, 1997 학사, 1999 석사, 2005박사(미술학)
개인전- 2023 <해체주의> 아트이슈프로젝트전주, <오래된 그리고 빛나는> 세브란스아트스페이스 & 아트파크, 2022 <성전의 그늘> 토탈미술관 외 38회
활동- 2001, 송은문화재단 송은미술상, 송은문화재단, 2004, 단원미술대전 평론가상, 단원미술제, 2004, 송은미술대전 지원상, 송은문화재단, 200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제1회 작품추천위원 , 2006,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1기, 200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4기, 2009, 파주출판도시 아트플랫폼 1기작가(열화당), 2018,, 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선정, 2020.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작품 심의위원, 2023.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2024. 전남수묵비엔날레 운영자문위원 등.
현) 국립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진희란 Jin Hee-lan



북한산로 71x102cm 순지에 수묵담채 2022

'산로山路'는 여정에서 본 길이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눈을 감고 떠올린다.
잔잔하게 남은 여정의 기억은 길을 따라 심산心山을 만들고 아련함이 가득찬다. 그 아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안개 속 빛처럼 희미함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산로를 따라 국내의 산천을 산행하며 느낀 자연의 변천과 순리,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간 사람의 흔적과 세월을, 산수(심산)의 모습으로 빚어내어 다시금 이야기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수료
개인전- 2020 <두류담경>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총 10회
단체·기획전- 2021 <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 : 신구운몽 新九雲夢>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20 <제11회 畵歌 감각기억 Sensory Memory>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9 <2019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展-내일의 작가>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8 <한국의 아름다움> 외교부 상황실. 서울, 2018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광주 외 다수

최지우 Choi Ji-woo



エデンの園
(에덴동산 · Garden of EDEN)
112.5×34cm
Mixed media · 2023

(창세기 2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동산은 신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행복이 시작되었던 최초의 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나라 곧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일본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이며 교토에서 전시했었다. 태양 뒤의 산은 후지산을 표현한 것이고 구름과 물이 흐르고 양이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 등을 통해 에덴동산이라는 무릉도원과 같은 행복한 이상세계를 표현하였다. 십장생도를 재해석하여 무릉도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2023 초대개인전 "HEAVEN" 군산ART TERRITORY, 2023 초대개인전 "JIWOO's EDEN" 서울JB Dream Gallery 외 2회
2021 변산반도 국립공원 기획전시 [21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작품소장처- 누벨백미술관 및 개인소장
사)한국여류화가협회 회원
E-mail_ jwc1100@naver.com Instagram@artist_ji_woo



2024 전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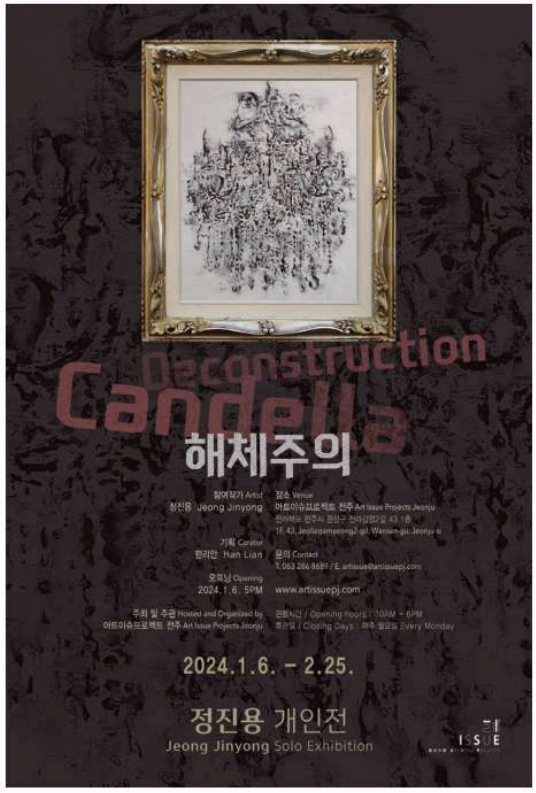
30 개인전- 정진용(해체주의)
31 개인전- 권기철(의미없는)
32 개인전- 이지이(밤의 이방인)
33 개인전- 이호억(다만 깊어질 뿐)
34 개인전- 진희란(산로-서울순성)
35 개인전- 박종갑(만경 생명의 강)
36 개인전- 박성수(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37 개인전- 박종갑(四方書(사방서))
38 개인전- 윤대라(비키니소다 - 최종병기 그녀)

정진용 개인展

해체주의

일정: 2024. 01. 06 - 02. 25

장소: 아트이슈프로젝트 전주



Candellai_destruction

어딜 가나 ai타령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의 핵심에는 분명코 사람이 있다. 교육과 문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종족개념으로서의 ai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호기심과 더불어 편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ai에 대한 우려를 시작한 것은 창작영역이었다. 20세기의 기계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역량이 21세기의 기계에게 가능해졌다. 이제 기계는 수행의 기능을 넘어 재생산의 영역에 도달해 있다. 이 재생산의 과정에 기계의 독자적인 판단이 관여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두려운 일이다.

ai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기계의 감정표현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발생하였다. 감정표현은 예술창작에 직결된다. 이미 ai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억대에 판매된 사례가 나온지 오래다. 쟁점은 인간이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일종의 기록적 결과물로서 취급해야 하는가 문제다. 여기에는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판정과 더불어 인간의 산물로서의 예술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관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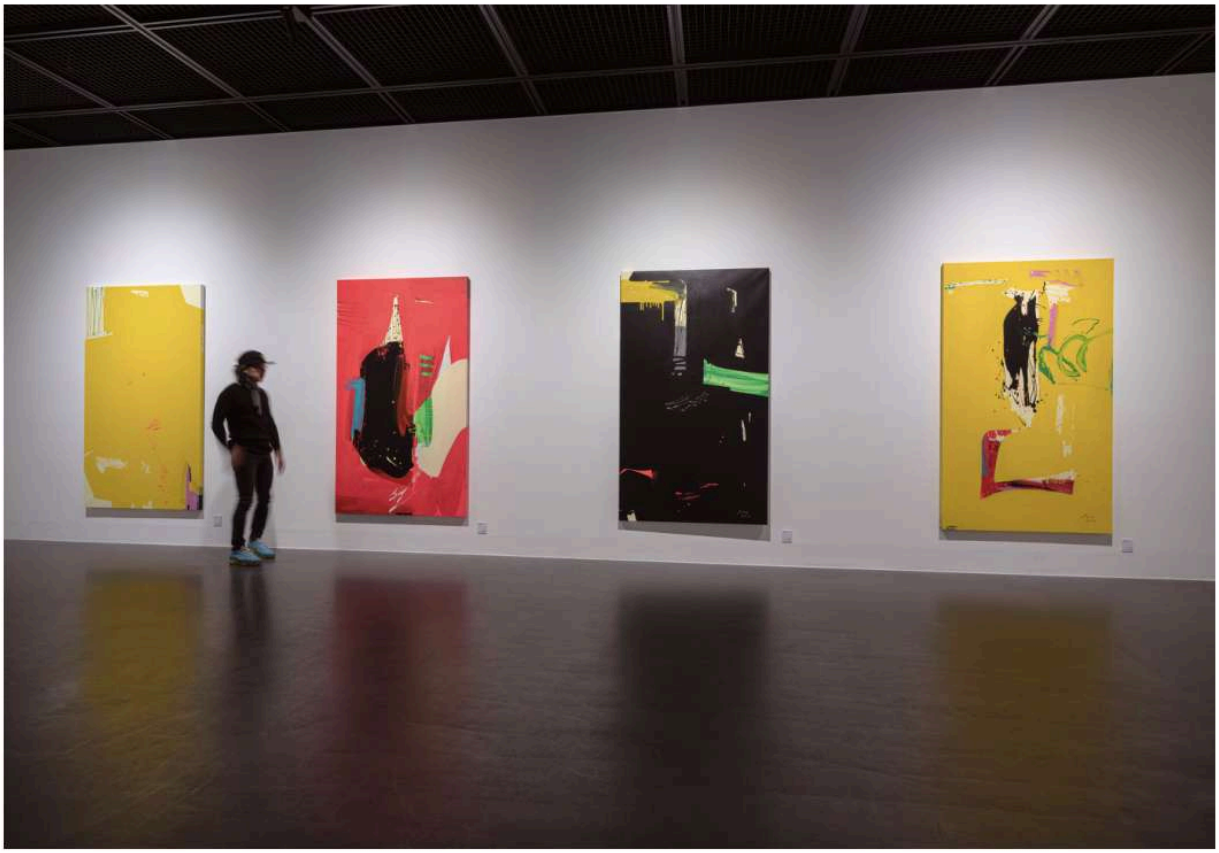
미술영역에 있어서 이 문제는 많이 심각해졌다. 예술에서 '가치'의 영역은 곧바로 '존재'의 경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의 두 문제에 대하여 작가는 통섭적 사고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미술은 음악과는 달리 예술작품으로서의 판정이 매우 주관적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다분히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에 맞물려 나는 이번 전시를 고민하였다. 과연 우리가 인정해야 할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예술적 가치판단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말이다. 상업성과 생산성에 매달린 작가들은 작가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ai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을 ai의 역할로 한정 짓는다. 작가의 '개인성'이란 작품에 작가만의 감정과 직관이 삼투되어 있어야 비로소 활성화 되는 것이다. ai는 내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며 명령자인 나조차 예측하지 못한 이미지를 생산해 낼 것이다. 그것을 나의 예술로 읽는다는 근거는 오직 결과물에 대한 사유의 주체가 예술가인 나라는 것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예술작품'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다층적인 고민 끝에 나는 ai를 시험하고 노출시킨 후 그것을 나의 감각과 상호교환, 교류비교의 과정 후에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마치 미끼를 만드는 과정을 맡기는 것과 같다. 나는 ai가 만든 그럴듯한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무능한 범인이 아니라 마치 천재적 사냥꾼처럼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명령한다. 나는 내 의지를 수행한 기계의 결과물을 날것의 포획물처럼 널어놓고, 잔인하게 가르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데이터에 없던 우연한 내장들을 끄집어 낼 것이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미지의 시체위에 다시 날카로운 연장들을 들이댄다.

기계는 나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오직 예술가인 내가 한다. 나는 기계의 의도를 나의 직관과 감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 마치 애초에 그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혹은 기계의 수행을 부정하는 것 마냥 나는 ai가 만든 그럴듯한 이미지를 교묘하게 파괴한다. ai의 해석에 대한 지움, 왜곡을 통한 재생산이라는 과정은 어쩌면 기계에 대하여 인간 예술가로서의 나의 우월함을 선언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다. 한편으론 그것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조심스레 고백해본다.

artist note/ J jinyong



권기철展

“의미 없는”

일정: 2024. 01. 24 - 02. 23

장소: 달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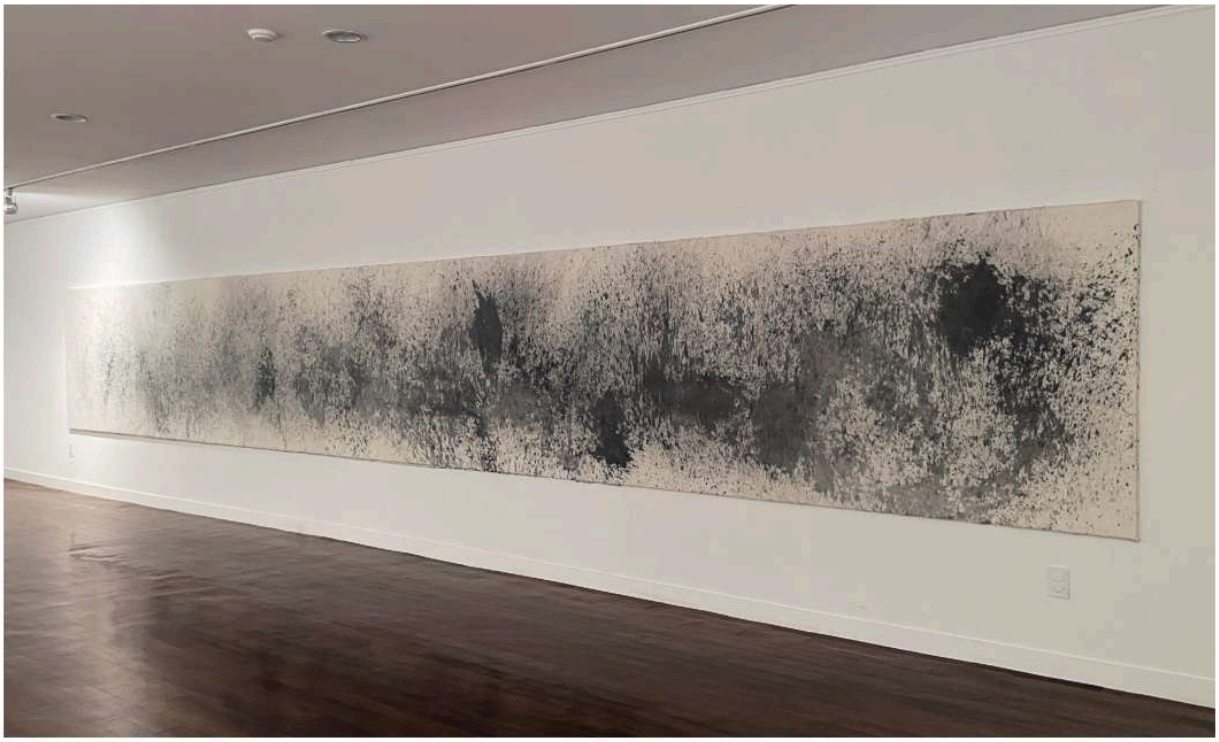


“의미 없는”: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미학적 패러다임 전환

권기철의 이번 전시회는 “그리고, 일상의 은밀한 서사” 연작을 통해 선보인 색채 추상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시 제목은 “의미없는”이다. “의미없는”이라는 전시 제목은 암호처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전시 제목인 “의미없는”은 추상화가 색채, 형태, 선, 질감과 같은 순수한 예술적 요소에 초점을 둠으로써 의미 부여의 무의미함을 나타낸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의미없는”이라는 표현은 반어적으로 작가의 복잡한 사고와 내면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붉고 파란 점, 선, 색채가 각별하고 섬세한 개인적인 것들을 기록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형적이고 의미론적 분석은 그가 추구하는 추상 양식과 미학적 실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의미없는”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작품 이해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제안된다.

윤혜영 (오하이오 대학교 예술대학 철학박사)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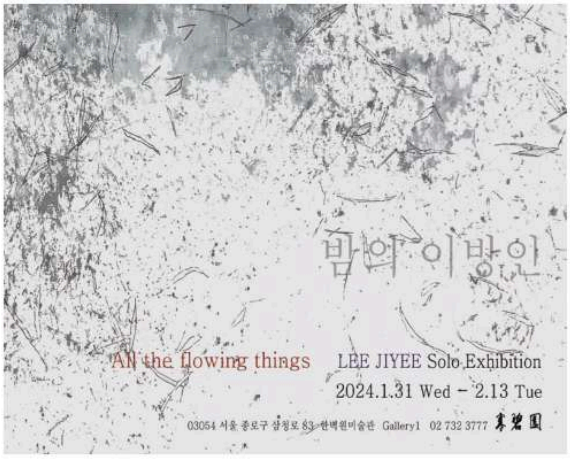
밤의 이방인 전시전경

이지이展

밤의 이방인

일정: 2024. 01. 31 -02. 13

장소: 한벽원미술관



<밤의 이방인 All the flowing things>

성장 시기에 겪은 나의 중간자적 삶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반추하기 시작하면서다. 이는 습관성 반추로 기이하게 변질되었고, 곧 작업으로 승화하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하고자 한다. <밤의 이방인 All the flowing things>展은 끊임없이 반추하는 자아에 대한 질문을 먹과 목탄을 이용하여 다양한 천위에 발묵 현상을 표현하고, 이때 먹은 마른 대나무 잎에 흥건히 묻힌 상태로 천 위에 발현되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표상한다. 긴 시간 차곡차곡 쌓인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작업을 통해 '발설發泄'되는데, 이를 중국 중당 시기 사상가인 한유(韓愈,768~824)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빌려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합당한 평정함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 초목은 원래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바람이 흔들면 소리를 낸다. 물은 원래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바람이 휘저으면 소리를 낸다. 물이 튀어 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 부딪쳤기 때문이고, 빠르게 흐르는 것은 막았기 때문이며, 끓어오르는 것은 불로 가열했기 때문이다. 쇠와 돌은 원래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어떤 것이 부딪치면 소리를 낸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득이한 것이 있고 난 후에 말을 하고, 그 노래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이며 곡ㅍ을 하는 것은 가슴에 품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입으로 나와서 소리가 되는 것은 아마도 모두 평정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지이 전시서문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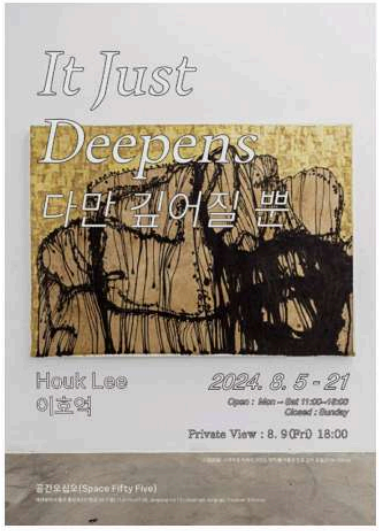


이호억展

다만 깊어질 뿐 (벌거벗은 마음)

일정: 2024. 08. 05 - 08. 21
장소: 공간오십오

일정: 2024. 10. 13 - 10. 20
장소: 복합문화공간청년들



당시 나는 무방비 상태였어.

약한 것은 죄악이야. 약한 것은 엿 보고 엿듣고 악을 행하는 데 서슴이 없거든. 그 악함에 대항하는 나의 태도야. 그래. 볼 테면 보아라. 들을 테면 들어라. 다 봐라. 프로젝트 벌거벗은 마음은 몸부림치던 2014년부터 2024년 십 년간의 여정을 대변하는 작업이야. 유난히 더웠던 2015년 여름, 내 첫 레지던시였던 홍성레지던스프로그램(이응노의 집 실험용 레지던시) 작업 공간은 에어컨을 틀 수 없었어. 그리고 제공된 방은 너무 작았고 창문조차 없는 그야말로 관짝 같은 공간이었어. 나는, 망한 미용학원을 개조한 그 작업공간에서 다이소에서 파는 그늘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잤어. 시장 상인들, 마을 주민들이 밤샘 작업 후 늦잠 자는 나를 구경하곤 했어. 처음엔 부랴부랴 일어났지. 하지만 어느새 내려놓게 되더라. 그래 볼 테면 보아라. 벌거벗은 마음. 잃을 것도 없어. 지금도 난, 그래. 2024년. 내가 아는 대전 유일의 대안공간 공간오십오에서 8월 12일(오늘)~15일까지, 살 거야. 오늘은 바닥에 깔고 잘 돗자리도 샀어.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할 거. 다 하려고. 보아라. 참, 벽에 걸린 그림들은 요즘 같은 어쩌면 내게 더욱 잔혹하게 더웠던 여름들에 그린 작업들이야. 딱 한 점이 겨울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원리는 같아. 내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잊지 않게 했거든. 내가 나일 수 있게 했거든. 그래서 그런 날씨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인왕묘사 38x100cm 순지에 수묵 2024

진희란 초대展

산로山路_서울순성

일정: 2024. 08. 30 - 09. 11

장소: 갤러리 내일



인왕무악 65x55cm 순지에 수묵담채 2024

산로는 산길을 따라 오르며 본 풍경이다.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노트를 들고 산에 올라 길 마디마다 멈춰서 사생을 했고, 그 길을 모아 산을 그렸다.

산은 그대로겠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산은 더 넓게 퍼지고 그려지는 산의 모습도 바뀌었다. 산수화는 관념의 분야니 이런 추상이 당연한 걸까. 하지만 작업은 작가의 시각에 따라 창작되며 얼마나 더 멀리, 넓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와 깊이가 변한다. 산수화를 택한 것도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자연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시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 때문이었다. 이후 국내의 여러 산을 사생하고 고전을 공부하면서 산수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납득되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고민이 더 깊어졌다. 탐구의 단계는 이제 스스로 만족할 정도가 되었는데, 자신의 작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고전을 공부하며 작업하는 작가들 사이에 공통되는 고민일 것이다.

일화가 있다. 공원에서 소나무를 그리고 있었던 어느 날, 눈은 소나무와 종이에 있고 귀는 주변에 오가던 사람들의 말과 바람 소리에 있었다. 눈은 점점 초점이 몰리며 소나무가 흐릿해졌다. 그 가운데 집중하며 수 시간이 지나 소나무는 완성되었지만, 기억에 남은 건 수다스러운 목소리들과 찬바람뿐이었다.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소나무 그림이 나왔다.

이 경험은 산수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산을 보이는 그대로, 준법에 잡혀 그리는 것이 아닌 내가 산행에서 오감으로 느낀 경험을 산의 모습을 빌려 그려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려온 사생 노트를 다시 넘겨보았다. 이동하느라 거친 선과 뭉개진 자국, 산을 보자마자 눈에 띈 바위를 크게 그리고 방금 막 오른 경사진 언덕의 표현, 순간의 장면과 생각을 글로 기록, 사생에서 나온 이러한 필(筆)이 내가 산에서 보고 느낀 감정 그대로가 아닐까. 다시 사생부터 되돌아보며 산수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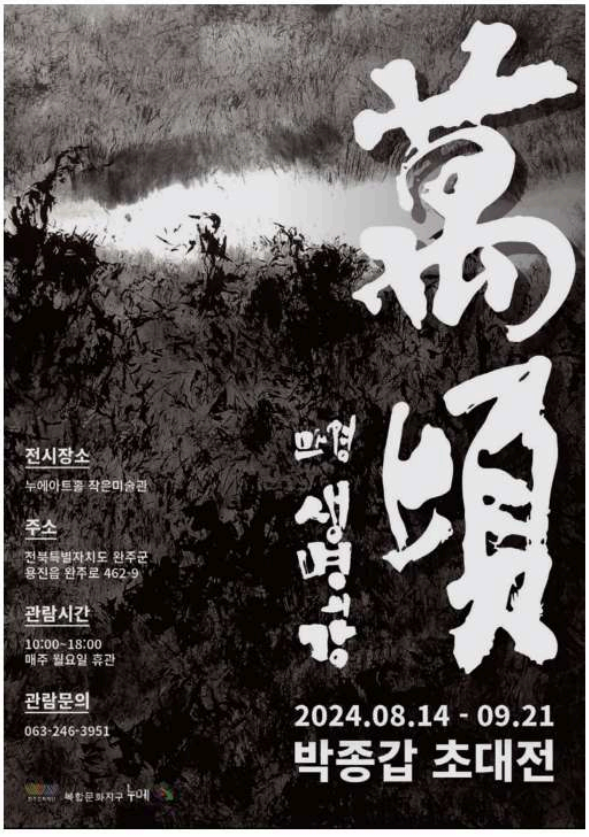


박종갑 초대展

만경(萬頃): 생명의 강

일정: 2024. 08. 14 - 09. 21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1, 2, 3 전시실



전시명 '만경(萬頃)'은 일만 만(萬)자와 이랑 경(頃)자로 조합된 강(江)의 이름이다. 만경강은 작업실과 지척에 있어 자주 거니는 곳으로 드넓은 호남평야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 이룬 습지 만경강을 관조하며 스스로 드러나는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문화가 타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불안과 번민에 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적 근원의 의미들을 되새겨 본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음을 보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들음을 추구하며 정중동(靜中動), 무위행(無爲行)의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사유의 장을 열어 보이려 했다.

平中見奇 평온한 가운데 기이함을 추구하고
靜中見動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것을 구한다.



박성수 개인展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일정: 2024. 09. 05 - 09. 15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작가가 말하는 이번 전시의 타이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지닌 두 가지 함의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이고 진화론적인, 유구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장대한 시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선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 시각화되고 정량화된 시간에 대비되는 체험된 시간이다. 후자의 시간은 베르그손(Henri Bergson)이 말하는 질적 변화이자 매 순간 속에서 직접 파악하는 내적인 시간, 즉 지속(durée)에 가깝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 사상(事象)의 단면은 절대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신체를 통해 '마르고 닳도록' 만지고 느끼고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2

박성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인간이라는 종(種), 현생인류는 어쩌면 현재와 다른 생김새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진화생물학 이론, 그 가운데서도 다윈(Charles Darwin)이 주장한, '중간 단계가 없는 유전자의 급진적 변이'를 떠올리게 한다. 이른바 진화의 충분조건으로서의 돌연변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일종의 가설을 통해 박성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정체성이 다분히 임의적이며 우연의 산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습이 다분히 우연의 결과라면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작가의 이러한 사유가 실험적으로 드러난 작업이 바로 이전에 시도했던 '전생연구' 연작일 것이다. 결국 박성수가 연구했던 '전생'은 前生이자 轉生(다시 태어남. 혹은 바뀌어 태어남), 즉 인간의 또 다른 가능태였던 셈이다.

#.3

이번 전시는 물론 박성수의 작업을 통틀어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촉각성이다. 지난 개인전《촉각공간》에서 드러낸 바 있는 촉각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기 드보르(Guy Debord)가 『스펙타클의 사회』를 통해 주장한 바와 훌륭하게 공명한다. 일종의 정치적 시론이자 선언문의 형태로 써내려 간 이 책에서 기 드보르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 감각인 시각을 "추상적이고 가장 신비화되기 쉬운 감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분리 이전의 삶,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개 없이" 직접 경험하는(vécu) 삶을 제시한다. 기만적인 스펙타클의 대척점에는 결국 촉각이 있다. 그리고 시각만이 편재하는 사변적인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퇴행한다. 박성수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인 닥종이 입체 작업들은 먹으로 그려냈던 드로잉(전생연구)에 촉각성을 덧입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닥종이 입체작업들은 뼈대나 프레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피부이고 살(flesh)이다. 이처럼 박성수는 몸이라는 스펙타클을 해체하고 촉각이라는 가능성을 통해 재구축한다. 그것은 생생한 삶으로의 회귀다.이 가운데서도 그 로댕(Auguste Rodin)의 <칼레의 시민들>에서 그 제목과 포즈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K의 시민>은 상황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용(轉用, détournement)의 좋은 예다. 군상(群像)이 아닌 단독상으로, 칼레(Calais)에서 K(Korea)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개인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

이번엔 박성수의 수묵작업들을 살펴보자. 박성수는 문인화에서 쓰일 법한 필법을 사용해 붓을 운용하지만(運筆) 거기서 나오는 선의 느낌은 일반적인 수묵화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박성수의 수묵은 선적(linear)이면서도 회화적(painterly) 이다. 이에 대해 박성수는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수행성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수행성이란 agency, 즉 행위 그 자체이자 행위능력, 행위주체성이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기에 "그렇게 그려낸 선의 운동은 시간(성)을 머금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의 수묵작업은 그래서 지표(index)이면서 상징(symbol)이다.

결국 박성수가 그 어느 때보다 몸-촉각-움직임에 집중해 작업한 이번 결과물들은 그것이 평면이든 입체든 모두 무기력한 관조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 관객은 그 선과 형태, 그리고 그 움직임에 조응해 시선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야 하며 직접 만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시각의 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탐구'는 이제 그의 작업을 아우르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f)다. (조재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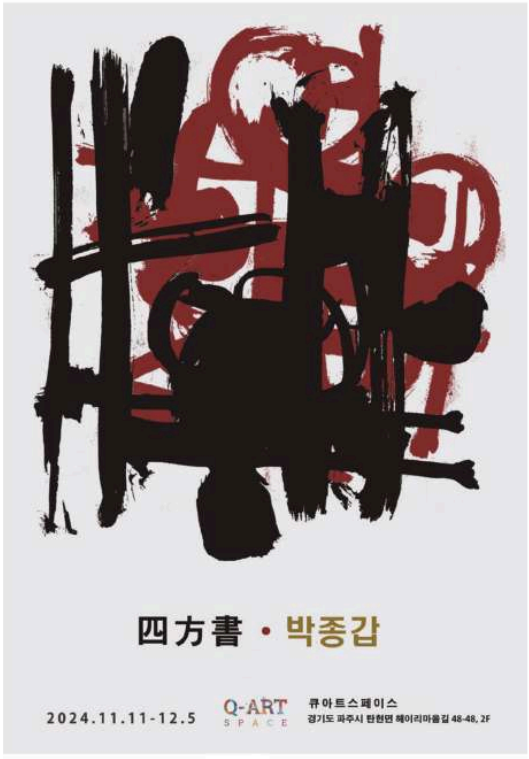


박종갑 초대展

四方書(사방서)

일정: 2024. 11. 11 - 12. 05

장소: Q-ART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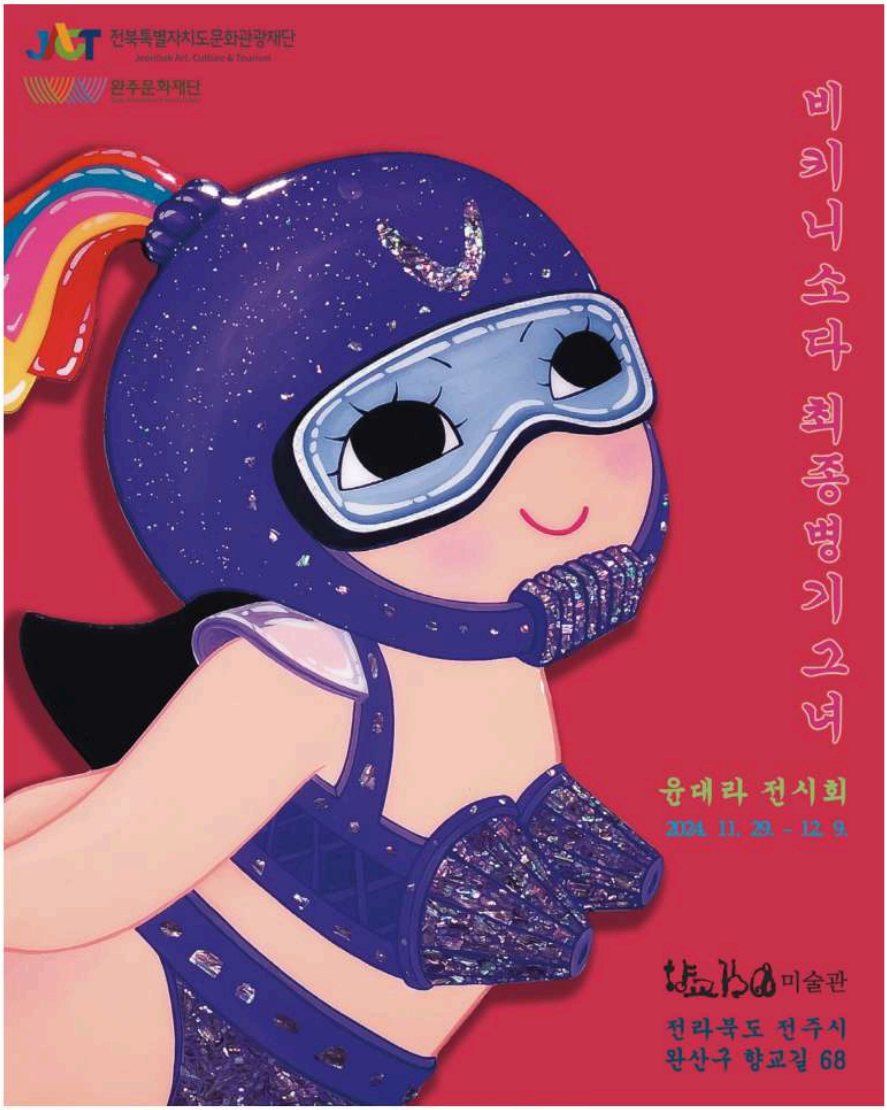


사방서(四方書)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한글을 집자하여 만든 현대적 조형 작품이다.

전통 서예의 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시각적 조형미를 드러내고, 기운생동하는 필획의 강약과 운필의 속도감이 만들어내는 유동적 표현은 문자가 지닌 상형성과 추상성을 현대적 미감으로 보여준다. 한글의 소리글자적 특성은 추상적 형태로 변주되어 화면에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하며, 이는 현대미술의 형식 언어와 자연스럽게 조우한다.

작품의 구성에서 검정과 흰색의 강렬한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음양의 대비와 방위의 개념은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서예의 기본 획법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문자가 지닌 본연의 의미작용을 넘어서는 순수 조형요소로서의 확장을 탐구한다. 문자가 지닌 문명사적 함의를 단순한 기호체계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으로 발현시키며 문자예술의 전통과 현대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한글이 가진 조형성과 문자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려는 시도이다.

- 박종갑 작가노트中



윤대라 개인展

비키니소다-최종병기 그녀

일정: 2024. 11. 29 - 12. 09

장소: 향교길68 미술관

'비키니소다'는 '무기'나 '병기'가 가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 대신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의 힘을 제시하며 힘과 무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킨다. 특수한 수트를 장착하고 선채로 오줌을 싸고 가슴에서 총알이 발사되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기존의 젠더적 구분과 그에 수반되는 행동 규범의 경계를 허물고 규정될 수 없는 정체성을 그려낸다. '비키니소다'의 이러한 행위는 오줌이 보랏빛 폭포를 이루고 총알은 무지개빛 꽃의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승화된다. 이와 같은 행위의 시각적 변환은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와 해방성에 주목하게 한다. 달에서 탄생한 '비키니소다'가 기존의 질서와 범주에 대한 도전을 상큼발랄하게 장착하고 바나나로켓을 타고 날아오른다거나 분출하는 에너지를 향해 비상하는 모습은 음양이 합치하는 초월적 존재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키니소다'는 획일적 가치체계와 규범적 정체성을 사뿐히 넘어 인간의 유연한 잠재성을 '최종병기'로 제시하고 우리 시대에 진정한 힘이란 획일성이나 지배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윤대라 작가노트 中



특별기고

40 필 + 묵 사유하는 실천
(권기철, 박방영, 박종갑, 이철량, 윤대라)
완주팔괴(박종갑, 윤대라, 이철량, 정진용)

41 현상(손종민, 박지예, 정미현)
누벨백기획전(손다운)

42 알리테무 연구보고서(손다운, 윤대라)
청년작가교류전- 잇다.(손다운, 윤대라)

43 블룸비스타 초대기획전 -한국회화 회원 25명
우아한 돌전(이호억)

44 한국&인도 국제 교류 아트프로젝트(박방영)

45 찾아가는 미술관 소개-공감 선유

46 박지예 논고-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석정 남궁훈

50 이호억 논고-본토(本土)

54 〈특별기고〉 박혜경- Kiaf와 Frieze 공동주최로 인한
미술 시장의 변화와 한국 갤러리와 작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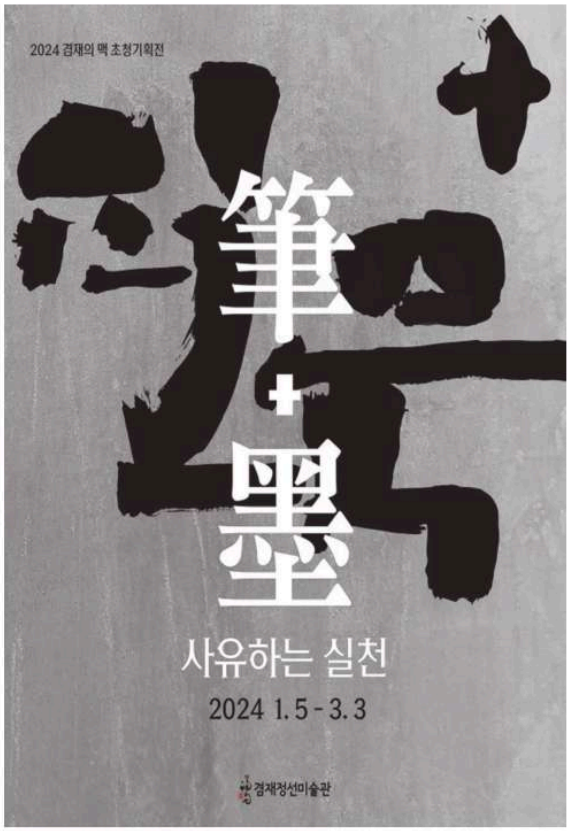
56 경주 미술기행 / 박대성작가 탐방

필(筆)+묵(墨) 사유하는 실천

참여작가 : 권기철, 박방영, 박종갑, 윤대라, 이철량

일정: 2024. 01. 05 - 03. 03

장소: 겸재정선미술관 제1, 2기획전시실



필묵筆墨은 단순한 예술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 예술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필+묵 사유하는 실천>은 이러한 필과 묵의 정서에 기반해 일관된 창작열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창작 정신이 세상과 조우하길 바라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현대의 한국화는 동양의 전통적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철학적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 변화, 생태 환경의 파괴 등을 바라보며 인간의 통제 속에 가두려 했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재고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의 논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겸재정선미술관은 동양철학과 전통적인 화법을 계승하며 새로운 매재媒材의 확장을 통해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작가 10인을 초청하여 2024년 첫 번째 <겸재 맥脈 잇기 초청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완주팔괴(完州八怪)

참여작가 : 박종갑, 윤대라, 이철량, 정진용

일정: 2024. 06. 27 - 08. 04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작은미술관 1, 2전시실



독자적인 개성과 표현으로 한국화의 영역을 넓혀온 작가 8인이 펼치는 파격(破格)의 아름다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미의 창조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법칙을 벗어나 그 자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다른 것, 새로운 것, 기이한 것, 인간 본성을 드러낸 것, 상투적인 법칙과 정해진 미의 틀에 대한 반역 등이 괴(怪)이다. 화가 판교(板橋) 정섭(鄭燮)은 진정한 그림의 뜻은 '자신의 느낌 감정을 마음껏 어지럽게(亂)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진취적인 정신은 중국 서화가 근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개성적 화풍과 창작방식의 선구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진취적 예술정신의 일맥을 한국화에 적용하여 회화형식의 쇄신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과 내용을 보여주는 여덟 명의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완주팔괴(完州八怪)란 이름으로 전시를 펼쳐보였다.

현상

참여작가 : 박지예, 손종민, 정미현

일정: 2024. 05. 28 - 06. 08

장소: 누벨백미술관



현상(現象, 고대 그리스어: φαινόμενον, 영어: phenomenon)은 실제로 드러나 있는 것,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도 그러하다. 집, 거리, 마을, 들판, 산이나 나무도 그러하지만 개개의 하나하나라기보다 그것들 전체의 변전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관찰되는 모든 사실과 4명의 화가들이 모여 각자의 현상들을 표현해보았다. 실상은 각자의 현상이다. 정말로 있는 것, 드러나 있는것만을 애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전시를 통해 감각을 통해 각자의 현상을 체험하길 바란다.

박지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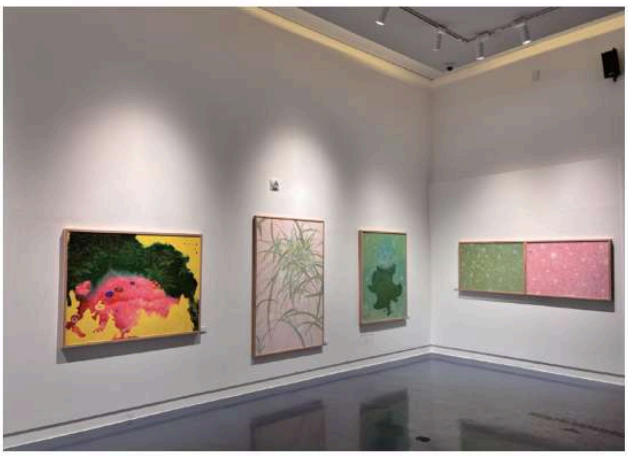
누벨백미술관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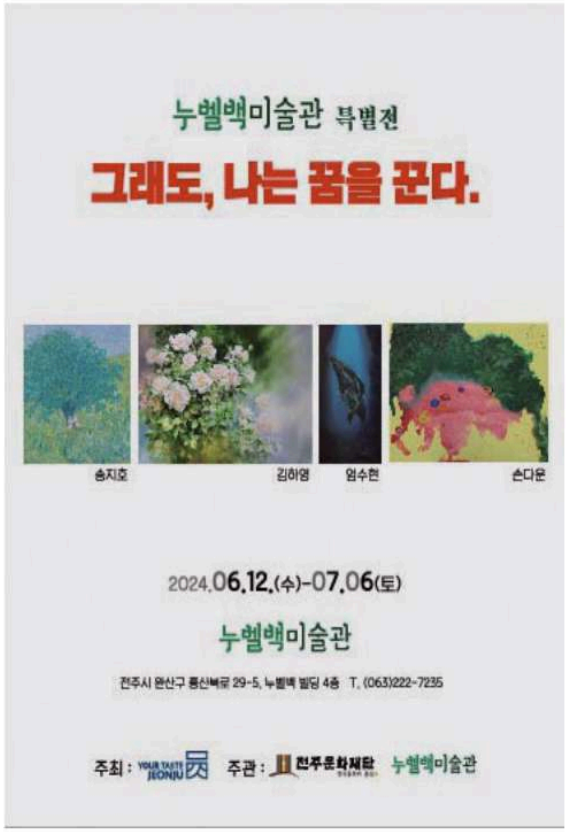
‘그래도, 나는 꿈을 꾼다’

참여작가 : 손다운

일정: 2024. 06. 12 - 07. 06

장소: 누벨백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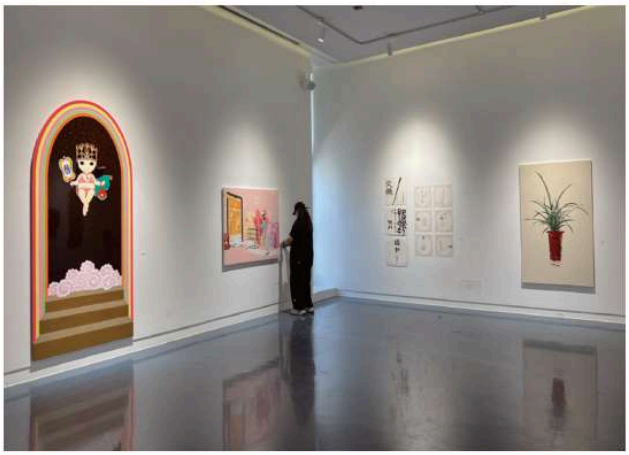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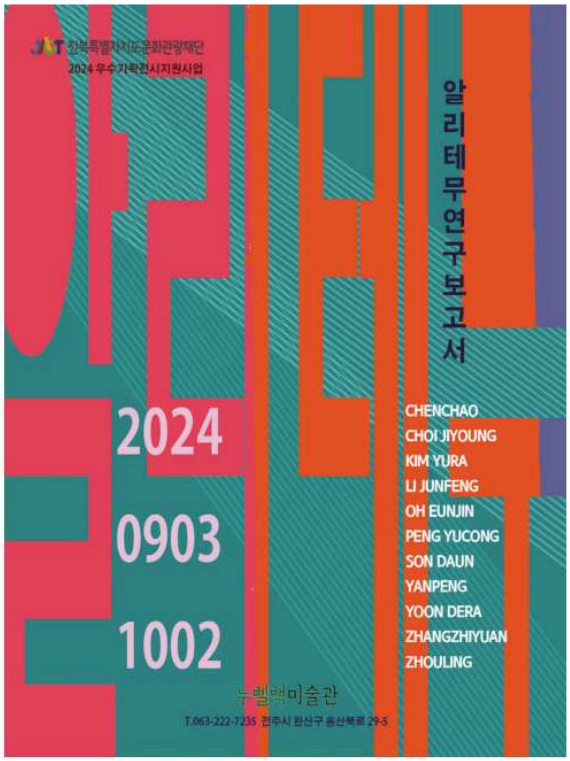
알리테무 연구보고서

참여작가 : 손다운, 윤대라

일정: 2024. 09. 03 - 10. 02

장소: 누벨백 미술관





청년작가 교류전 '잇다'

참여작가 : 손다운, 윤대라

일정: 2024. 09. 25 - 10. 27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작은미술관





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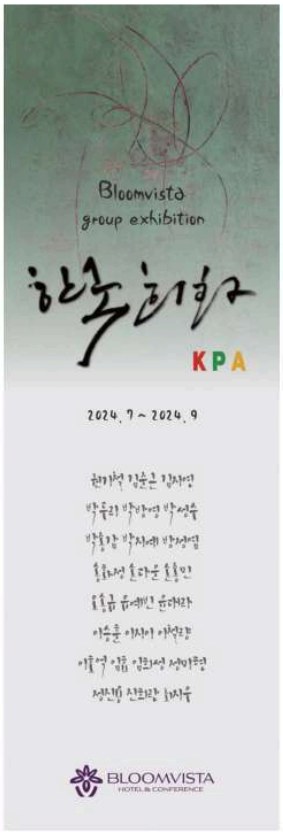
한국화2

일정: 2024. 06. 27 - 09. 30

장소: 블룸비스타 양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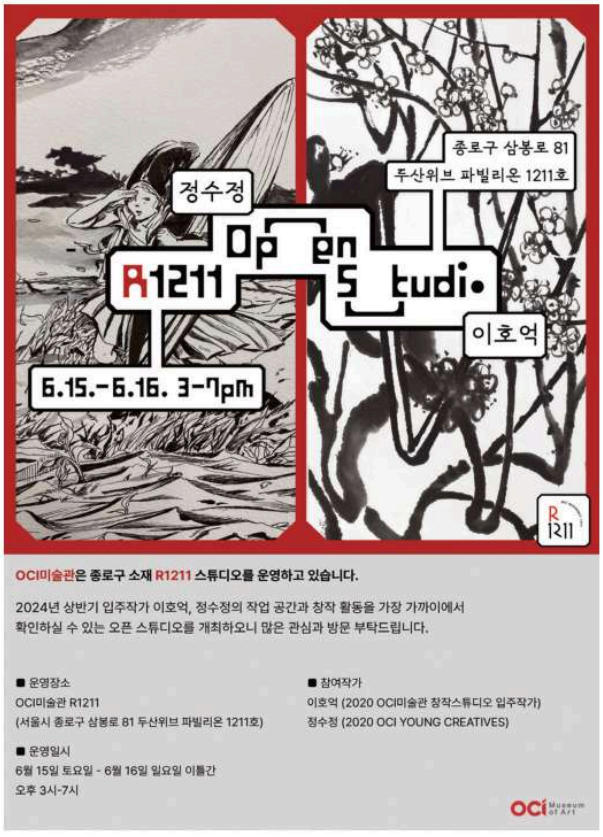


OCI미술관 R1211 OPEN STUDIO

참여작가 : 이호억

일정: 2024.06.15 -06.16

장소: OCI미술관 R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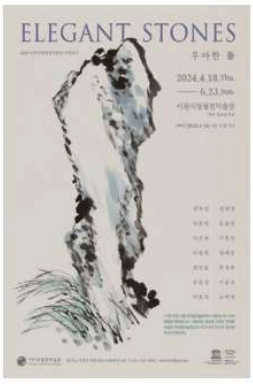


Elegant Stones: 우아한 돌

참여작가 : 이호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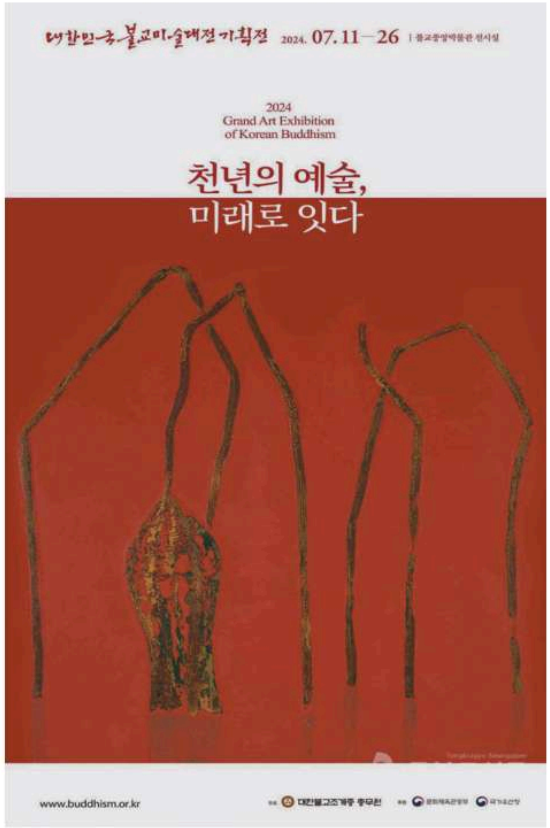
일정: 2024. 04. 18 -06. 23

장소: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24 한국&인도 국제 교류 아트프로젝트

일정: 2024. 10. 02 - 11.21

장소: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인도 첸나이 인코센터

참여작가 : 박방영

한국&인도 국제 교류 아트 프로젝트는 양국의 공통된 문화 흔적을 찾아나가고자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입니다.





자연 존중의 베이스로 현대인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감성 복합문화공간" 공감선유

공감선유는 언덕정원에서 마음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문화와 자연을 통해 휴식이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감성 문화공간"을 꿈꾸다.

군산에서 차로 좀 더 이동하다보면 시골에 위치한 갤러리 문화공간이 하나 있다. 한 블로거의 말에 의하면 공간에서 보는 모든 뷰가 그림 같은 곳으로 이곳은 바로 공감선유, 새만금 근교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하여 건축된 대형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공간은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넓은 옥구평야가 정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뒤편엔 염병산 자락이 병풍처럼 감고 도는 들과 산속에 자리한 야트막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과 도심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중앙에 위치한 산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6개동의 미술관과, 1개동 음악관등 모던한 콘크리트 건물 6개동을, 그리고 100년 초가한옥을 복고하여 현대와 고전이 함께하는 감성의 건축공간을 조성하였다.

공간전체는 건물과 담으로 외부와 차단하면서도 내부에 들어서면 여러개의 공간이 차례로 열리는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여 현대인의 삶에 생각을 잠시 내려 놓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상쾌함과 도심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다르지만, 이 두가지 감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배치와 디자인에 특히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공감선유는 모든 건물과 야외에도 음악이 흐르고, 모든 건물에는 시즌마다 다른 작가들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방문객들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전북 미술을 다시본다 —

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석정 남궁훈

박지예(전북대 객원교수. 미술학박사)

석정(石丁) 남궁훈(南宮勳)은 1929년 전북 정읍에서 아버지 남궁중화와 어머니 정거산의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산과 강이 있는 천덕리 마을에서 성장했다.

남궁훈은 어려서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다고 한다.

남궁훈이 정우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담임선생님께 그림을 배우고 학교 대표로 서예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이리(익산) 농림학교에 입학하여 벽천 나상목(1924-1999)을 만나 지도를 받고,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심산 노수현(1899-1978)과 제당 배렴(1911-1968)에게 그림을 배워 남종화풍의 전통적인 방식을 공부하였다.

남궁훈이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며 활동하던 대학 시절은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시기였다. 미술계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점차 정상적인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으나 6. 25사변으로 혼란한 시기가 되었다. 그는 이런 힘든 시기를 겪으며 작업에 정진하여 대학 시절 교내 미술대회에서 문교부장관상 및 총장상을 받았으며, 학생 신분으로 1954년부터 1959년까지 국전에서 연 5회 입선을 하였고 1955년에는 서울미술대전 최고상을 받기도 하였다. 1957년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온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가 창설된 197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69년부터 1983년까지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맡았고, 1969년부터 1984년까지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전북 문화상을 수상하며, 대중적으로도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남궁훈은 원광대학교에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도하며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또 대학에서 초대 학장직을 추진력 있게 수행하여 여러 교수진을 초빙하는 등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작품 활동 초기에는 사생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점차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념적인 산수화 양식과 함께 발목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남궁훈은 사생을 바탕으로 한국적 풍경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였고, 소재는 주로 산을 많이 그렸다. 그의 호가 석정(石丁)인 것으로 보아 항상 변치 않은 곧은 심성을 지향하는 마음과 자연을 숭상하고 닮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실제 스케치에서 얻어진 산의 이미지를 작가가 느끼는 감각을 통해 발묵적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수묵화에서 발묵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과 같은 무한성을 함축한다. 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붓을 눕혀 사용하기도 하고 넓은 선에서 오는 농담의 효과 즉 한쪽은 진하고 다른 쪽은 엷게 풀어지는 담묵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남궁훈은 현대적인 한국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노력한 작가이다. 당시 서양미술의 유행 등으로 한국화단은 혼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작가는 진지한 고민을 통한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화면의 구성에서 옛 전통 방식인 삼원법과 준(皴)에 의존하지 않고 대



(그림1) <산> 67cm×43cm 전주대학교 박물관

상을 확대하여 보거나 화면의 자율성을 강조하였고 채색과 발묵, 필법 등을 통해 대상의 형태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형식의 현대 수묵 회화를 시도한 작가라 말할 수 있다. 그는 1984년생을 마칠 때까지 고향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며 수묵 화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전북은 일찍이 예향의 도시로 이 지역 출신인 남궁훈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고향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가 원광대학교 재직시절 제자였던 백석만(당시 조교)은 남궁훈의 성품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이었다고 증언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작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산을 주제로 그린 수묵 담채화로 기존의 남도 수묵화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산의 이미지를 대담한 필치로 붓의 운용과 먹의 발묵, 채색, 담담한 구성 등이 어우러져 기존의 전통 방식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정형화된 조선시대의 산수화 형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굵고 넓은 선과 파묵 그리고 발묵의 자유로운 운용에서 다른 산수화 형식으로 차별화된다. 구도는 오른쪽 위 끝에서 왼쪽 아래 끝으로 향하고 다시 화면 아래 낮은 산으로 돌아오는 역 C자형 구도로 산의 역동적인 기운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비백은 폭포가 떨어지는 듯한 연상을 준다. 폭포수는 어느 순간 흰 여백과 한 공간에서 만나 화면의 공간을 확대하는 효과와 여운을 남기게 한다. 배경의 먼 산은 엷은 청색을 이용하며 붓질은 가벼워 더욱 아득한 느낌을 전한다. (그림1) <산>은 남궁훈이 현대 수묵화를 시도한 작가라고 인정할 만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의 마음을 붓에 실어 산의 이미지를 붓이 가는 대로 맡겨 놓은듯하다. 본 작품의 산은 산이면서도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면서도 물이 아닌 그저 작가 자신의 기(氣)와 심상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2) <산> 87.5cm×66.5cm×4.5cm 정읍시립박물관

(그림2) <산>에서는 쓸쓸한 겨울 산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세부의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겨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엷은 담묵으로 하늘을 칠하고 산은 흰 여백을 군데군데 남긴 것이 인상적이다. 이런 여백의 공간은 화면 밖으로 연결성을 갖는다.

(그림3) <산>은 표현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안개 자욱한 산에 자수 정체가 집합된 것처럼 보인다. 산 정상에 붉은색은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듯하다. 안개와 산이 층층이 계단처럼 연결되며 우뚝 솟은 산 정상이 보석 덩어리처럼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또 산허리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몽안적인 신비감을 준다. 전반적인 모습이 산 이라기보다는 화려하게 장식된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광복 이후 많은 한국 작가는 우리의 강과 산을 사랑하고 한국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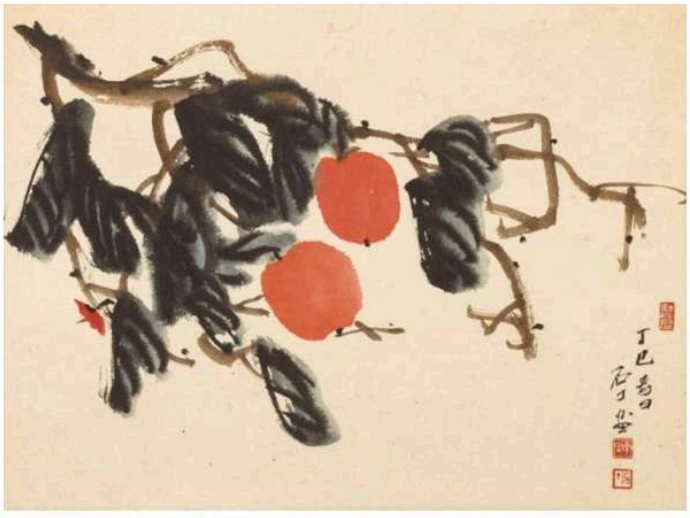


(그림3) <산> 64cm×71cm 전북도립미술관

1950-60년대는 한국화단에 서양화의 표현주의가 유행하였다. 아마도 남궁훈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유행하였던 방향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대부분에서 굵고 대담한 붓질과 채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현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 서양화에서는 바탕을 모두 칠해야 완성된 작품이라 말할 수 있으나 한국화는 바탕을 비워두는 것은 또 다른 여백이 주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림3)<산>은 바탕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산의 형상을 더욱더 신비스럽게 해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 여백을 적적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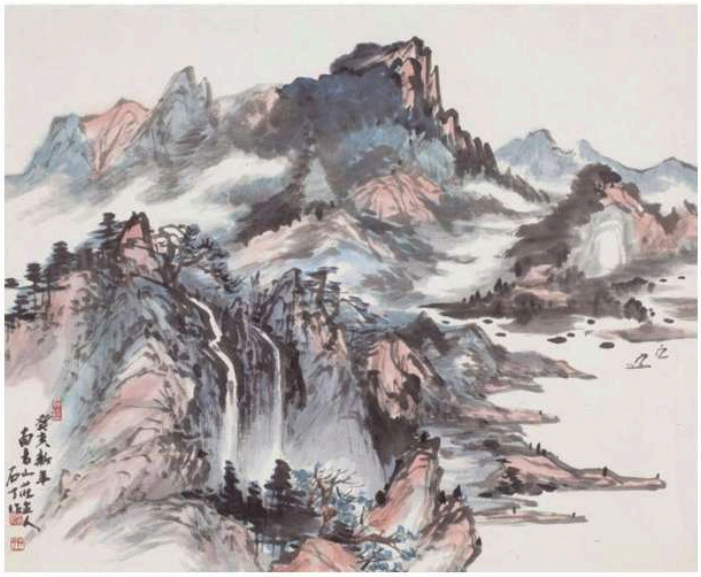
그는 전통적인 산수화를 바탕으로 남종화를 익히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자 노력하며 산수를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산수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난 작품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작품 성향으로 보아 남궁훈은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작가로 생각된다.

(그림4)는 1977년 정사년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문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그린 문인화로 감의 상징은 소원성취 등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화면은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온 감나무 가지를 그렸다. 끝이 잘린 감잎은 풍성하고 청색과 농묵의 몰골법을 사용하여 촉촉한 물맛을 살렸다. 다만 끝이 잘린 가지 끝이 화면에 머물고 있어 선이 시원하게 뻗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림4) <감> 33.5cm×45cm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넉넉한 삶을 꾸려왔고 이런 환경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예술이 발달하였다. 그중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다루고 감상할 수 있었던 서화 미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 문인화도 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림4) <감>은 자연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그림4) <감> 33.5cm×45cm 전북도립미술관

집에 걸어 놓았고 이는 선인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삶의 안정과 위로를 얻는 삶의 지혜이기도 했다. 한 붓으로 시원하고 깔끔하게 그려낸 주홍색 감과 감잎의 군청색이 가을의 정취를 풍성하게 만든다. 군청 감잎이 마치 붉은 감을 감싸안고 있는 듯하여 더욱 편안하고 정감 있는 모습이다. 잎의 가장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맑은 담채의 물맛과 잎맥을 친 농묵이 어우러져 문인의 풍류를 느끼게 한다.

(그림5) <우리 강산>은 1983년 작으로 생의 말년이라 할 수 있다. 산을 주로 그린 작가답게 숙련된 붓의 운용과 과감한 생략이 돋보인다. 필 선과 채색으로 완성된 산수화이다. 녹색과 청색을 주로 사용하여 여름 산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한 근경이 가볍게 이어지는 중경을 지나 비스듬히 우뚝 솟은 원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넓은 시야가 펼쳐지는 구성으로 산이 광대하게 펼쳐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왼쪽 아래의 산에 바위틈으로 얇은 폭포수가 떨어지고 폭포수는 강으로 연결되어 아기자기한 표현이 되었다.

표현형식은 관념적인 산수화 양식으로 산의 준과 나무의 표현이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먼 산을 더욱더 험준하게 표현하여 장엄한 느낌이 들어 자욱한 안개 속에 신선이 있을 것 같은 광경으로 더 깊은 공간감이 표현되었다. 강가에 떠다니는 작은 돛단배가 바람의 흐름을 연상시킨다. 다만 붓질이 좀 빠른 감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남궁훈은 근대와 현대 사이 격정의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산수화를 표현하였고 새로운 한국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작가이다. 그는 묵림회(서울대 미대 동문 한국화단체)가 해체된 이후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평생 자기 수양을 통해 새로운 조형 세계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며 붓을 놓지 않은 작가이다. 이런 자신의 작품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작품세계를 말하자면 종래의 동양화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한국화의 지평으로 승화 확대하려는 데 있다. … 대상의 재현이나 장식보다는 오히려 그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남궁훈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에 도전한 작가로 전북화단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새로운 한국화의 지평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참고자료: 황준택「석정 남궁훈의 생애와 회화 세계 연구」원광대학교석사논문. 1999.

자료제공: 정읍시립미술관, 원광대학교 신간 제438호

본토(本土)

이 호 억(한국회화회 회원)

이호억 작가는 중앙대학교에서 한국화와 예술학을 전공하고 개인전으로는 갤러리조선에서 열린 『Glowing Face』(2018), 『범람정원』(2022)과 영은미술관의 『무진』(2022) 등이 있다. 또한 OCI미술관과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제1회 광주화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미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건양대학교 휴머니티 칼리지 인문 융합학부에 재직 중이다.

1. 일본화에 죽음을 선사하겠다.

오픈런. 최근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서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마비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이다. 미술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어쩌면 주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돌고 도는 것이 내가 경험해온 미술계의 한 현상이다. 2008년 문화관광체육부와 조선일보가 야심 차게 준비한 제1회 아시아프에서 오픈런의 현상을 보았으며, 2023년 1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무라카미 다카시의(村上隆, 1962년 2월 1일~) <무라카미 좀비>展이 그랬다.

좋은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이번 글에서 언급할 내용은 다소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술계의 무라카미 현상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슈퍼플랫. 일본의 미의식은 가볍고 평면적인 서브컬쳐에 있음을 주장하며, 무라카미가 제시한 일본미술의 근간은 만화다. 무라카미는 동경예대에서 일본화(동양화)를 전공한 일본화 작가였으며 일찍이 "일본화에 죽음을 선사하겠다." 선포한 이력이 있다. 동경예대에서 일본화를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수석으로 졸업했던 일본화의 적자인 그가 이러한 언급을 했던 원인은, 일본화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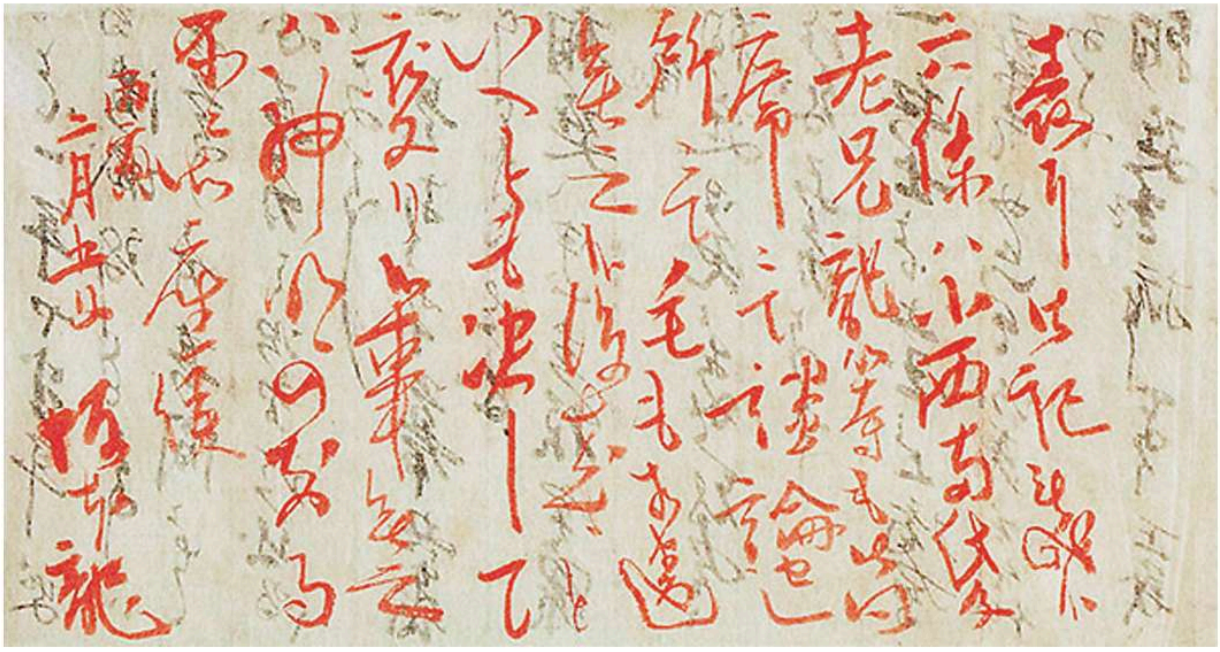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유신의 가치를 계승하는 서구주의자다. 김옥균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근대 일본의 법학, 의학, 정치, 군사학을 망라한 대부분 인물은 서구주의자들이었다. 강철로 만든 서양 군함에(흑선) 의해 불바다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고향 땅을 목격한 이 지방의 청년들은 와신상담으로 실력을 쌓았다. 세계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도쿄(에도막부)의 무능을 타계하고 그간 국경과 변방으로서 착취당해온 지방정부 사쓰마와 조슈는 서로에 대한 오랜 원한을 묻어두고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교토의 천황을 등에 업고 에도막부를 종식 시킴과 동시에 아시아 전체를 디자인하기를 감행한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다.

이 서사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17세기 임진왜란 발발 직후 사가현의 영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1538~1618)는 북진을 포기하고 집요하게 금강 유역에 머물며 도공들을 납치한다. 조선의 도자기는 성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보물이던 탓이다. 이때 납치되었던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이 건설한 아리타 도자기 산업을 근간으로 이어온 부유함이 에도의 경제를 뒷받침했고, 훗날 나베시마 가문은(나베시마 나오마사1815~1871) 메이지유신을 후원하며 수도인 에도를 능가하는 부와 군사력을 축적했다.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암스트롱 캐논포와 군함을 사들였다.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이후 일본의 중앙 요직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했으며, 해군과 육군을 각각 사쓰마와 조슈가 장악한다. 그리고 이들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1866년 가쓰라 고고로(기도 다카요시)의 요청에 따라 6개조 맹약 뒷면에 삿초동맹의 증인인 료마가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쓴 삿초동맹 합의서. [일본 궁내청 소장본]

메이지유신을 성공한 서구주의자 이토 히로부미는 수백 년간 일본의 궁전을 장식해온 가노파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명령을 내린다. 바로 "서양화 같은 일본화를 만들어내라."라는 주문.

이토의 명에 따라 가노파는 유화와 경쟁하기 위해 유화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석채라 불리는 신암채를 개발하고 채색화기법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동경예대를 비롯한 일본 미술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한국의 화가 천경자, 박생광 등이 그렇게 발명된 일본화를 배워왔고 이를 한국 미술대학에서 교육했다. 여기에 더해 조선 미술 전람회의 심사위원이 가노파를 계승하는 일



1866년 가쓰라 고고로(기도 다카요시)의 요청에 따라 6개조 맹약 뒷면에 삿초동맹의 증인인 료마가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쓴 삿초동맹 합의서. [일본 궁내청 소장본]

본화 화가들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조선에서 미술로서 등단하기 위해서는 서양화와 경쟁하기 위해 창조된 신화. 바로, 일본화를 그려야만 했던 것이었다. 이는 운보 김기창과 월전 장우성의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2016년 북해도 미술관에서 동경예대 일본화학과에서 퇴임한 히라야마 이쿠오의 회고전을 관람하며 가히 석채화의 정점에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 착수된 신암채 개발과 일본화라는 창조된 신화는 이토 히로부미가 목표했던 서양화 같은 일본화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히라야마 이쿠오의 제자인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러한 일본화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나는, 2003년 일본의 관전이라 일컬어지는 일전(日展)을 관람하기 위해 도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치 한 사람의 개인전과 같은 모습을 보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이들의 그림은 마치 공예 같구나."

통일된 기법과 유사한 주제. 화려한 색채. 마치 장식미술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작업을 전개하는 기준과 의도가 작가에게 있을 때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내가 본 일전의 모습은 이토 히로부미의 명을 계승한 가노파의 재현처럼 느껴졌다. 결국, 현대 일본화는 공예를 계승한 다른 방식의 공예다. 무라카미가 일본화에 죽음을 선사하겠다는 말은 자신은 예술가 되겠노라 천명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국수주의 경제인에 의해 수집되어오던 일본화의 매매도 지금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한때는 서양화의 세배 가격에 거래되었던 일본화의 몰락이었다. 일본화에 죽음을 선사하겠다던 탕아 무라카미의 성공과 비견 된다.

2. 한류와 경쟁하는 쿨 재팬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라카미의 성공은 일본의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일본은, 대중예술로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는 한류와 경쟁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멋진 일본이라는 의미의 쿨재팬 정책을 실행했다. 이 쿨 재팬의 전면에는 만화가 있으며 만화의 조상을 우끼요에와 우끼요에를 그린 죠닌 계급의 화가인 호쿠사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죠닌은 가노파와 대치되는 평민 화가들이다. 일본의 작전은 국내외를 망라한다. 2024년 여름. 네덜란드의 반 고호 미술관에서는 일본 만화 피카츄를 고호의 작품과 결합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한해 늦게 열린 2020도쿄올림픽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와 모든 외국인 기자는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다. 나리타 국제공항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이 되어 에도시대의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 北斎, かつしか ほくさい, 1760년 10월 31일 ~ 1849년 5월 10일)의 후지산 36경을 디지털 이미지와 함께 메타버스(metaverse) 환경을 만들어 공항이용객이 곧 호쿠사이의 작품 속을 거닐며 관람하는 체험객



무라카미 다카시 시그니처 캐릭터 플라워와 뉴진스가 함께하며 새롭게 탄생한 '플라워 캐릭터' © IPX 2024-06-26

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자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70세가 넘은 몸을 이끌어 제작한 이 후지산 36경은 쿨 재팬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심지어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은 후지산 36경 중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음이 유력한데, 이에 관해서도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의 내용과 두 작품의 유사성을 보았을 때 고호가 호쿠사이의 그림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풍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만화의 종주국이 일본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일본의 만화산업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능가하는 외화를 벌어다 주고 있으며, 대기업의 총수들과 더불어 일본 내 최고의 부자들은 만화가다. 쿨 재팬의 핵심은 인상파 탄생의 기원이 일본임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향하는 곳은 우월한 일본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다시금 세계사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이 투영된 정책이다. 반면, 이 쿨 재팬 정책에 있어서 가노파와 근현대 일본화는 철저히 외면된 상태다. 이제 일본의 재벌은 일본화를 사지 않는다.

쿨 재팬은 자포니즘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사람들의 자신감은 과거 열도를 장악한 메이지유신세력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일본 공예와 이를 포장하기 위한 완충재 역할을 한 우키요에를 소개하며 예상치 못한 판매와 관심을 경험한 것에 근거한다. 이것이 곧 일본 열풍. 이른바 자포니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모네와 고호는 광적으로 우키요에를 수집하고 모방해 그리기를 거듭한다. 산수의 파편인 다색 목판화 우키요에는 그렇게 유화로 옮겨지는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 제국을 제외한 타자의 개념으로 쓰이던 오리엔탈의 의미도 자포니즘을 계기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쪽 바다의 땅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생성되기에 이른다. 자포니즘은 서양인들에게 전에 없던 총체적 사유라는 현상을 일으켰다.

우키요에 속에는 산수개념이 녹아있었으며, 원근법과 소실점으로 귀결되는 세계관을 지닌 유럽사람들에게 우키요에는 화가의 주관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큰 오해를 일으킨 것이다. 주문자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된 이동 시점과 다 시점과 간결한 선적 표현은, 원근법의 세계와 만나 일종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근대 미술을 탄생시켰다. 공예가 공예를 만나 오해로

인해 미술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인들의 우월감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일본인들이 인상파 화가들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3. 다시, 한국을 바라본다.

은하철도999, 세일러문, 드래곤볼, 에반게리온 등 아시아 세계의 80년대와 90년대생의 문화공통분모는 일본 만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젊은 화가들에게 선각자와 같았던 무라카미의 작업을 한 번이라도 보았던 아시아의 젊은 화가들은 자신들 내면에 향수처럼 살아있는 일본 만화를 근간으로 한 슈퍼 플랫 개념의 작업을 다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팝아트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인기는 그들의 아비인 무라카미를 능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는, 무라카미가 자신의 아비인 일본화를 지우는 방식으로 자신을 탄생시켰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라카미의 분노가 슈퍼플랫을 탄생시켰듯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항'이다. 그 저항의 근간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훔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같은 맥락에서 민화를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 일본을 비롯한 서구 미술의 대척 상징으로 19세기 조선 반도에서 출현한 민화를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전시와 연구발표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민화란 무엇인가. 나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년 3월 21일 ~ 1961년 5월 3일)가 민화를 명명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사람들의 미의식을 한계 지었음에 문제의식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한국의 화가들에게 야나기의 주장이 계승되었던 그 중심에 야나기가 발굴하고 명명한 '민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는 슬픔의 미, 비애의 미다."(야나기 무네요시)

인간의 가능성을 한계짓는 일은 전근대의 계급 질서를 계승하는 폐단이다. 나는, 이러한 근대의 결핍을 보완하고자 이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야나기가 언급한 민예 운동과 그 핵심 개념인 타력은 야나기 개인의 주장으로 종결되어도 될 이야기였으나 야나기의 주장은 반도예술의 물줄기에 일종의 방향을 만들어 버린 것이 문제다. 타력의 아름다움을 풀어보자면 토장국 같은 그림, 해학, 소탈, 유머 등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확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인이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사유에서 문제를 도출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합치 여부를 따지는 오류를 범하게 했다. 여기에는 조선의 아름다움은 비애의 미라는 야나기의 주장을 의구심 없이 받아들인 한국인의 수동적인 태도와 판단력 부재도 일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결국, 줄에 묶인 채 성장한 코끼리가 줄을 풀렸음에도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의식의 속박을 지적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한국화를 전공해오며 피부로 느낀 문제들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작품의 방향뿐 아니라 화가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4. 나가는 말

서구주의자가 되는 것으로서 일본을 지키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과도기적 몸짓이 오늘날 한국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 형국에서 탈출해야 한다. 일본인들이 서구를 의식하고 경쟁하고자 설정했던 동양이라는 개념. 해방 이후 다시 이 개념을 건설한 일본을 경쟁하고자 하는 한국의 화가들은 이중의 경쟁, 이중의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일본도 한국도 여느 유럽국가보다 꽤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공예가 공예를 오해한 것에 비롯되었을지라도, 예술의 탄생이 오늘날 인류의 도전과 번영을 이끌어 왔음을 기억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내가 나로서 판단하고 사유할 때. 제2의 제3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설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방황하던 어느 밤. 나는 독립문에 무작정 내려 모든 걸 게워내고 돌 위에 누워 잠들었다. 사대하던 중국과 천년의 악연을 끝내고 근대국가로 나아가길 염원했던 서재필 박사의 독립문 아래에서 새벽녘 내리는 이슬비에 잠이 깼다. 그리고 나는, 나의 독립을 다짐했다. 예술의 본토(本土)는 작가가 서 있는 이곳이다.

2024/11/04 정릉에서

Kiaf와 Frieze 공동주최로 인한 미술 시장의 변화와 한국 갤러리와 작가의 대응

박혜경 (서신갤러리 대표/한국화랑협회 사업 이사)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와 Frieze(프리즈)가 서울에서 공동개최된 것은 한국 미술 시장과 한국 작가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술 시장 규모의 확장을 넘어서, 한국 미술이 아시아와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갤러리들과 작가들은 더 많은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동개최의 영향과 그로 인한 한국 갤러리들과 작가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과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한국미술시장의 성장을 위한 모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화랑협회는 프리즈와 5년간의 한시적 공동개최를 협약하였습니다.

Kiaf와 Frieze의 공동개최는 한국 미술 시장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이끄는 KIAF와 런던을 기반으로 출범한 글로벌 프랜차이즈아트페어 Frieze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화랑협회는 1976년에 화랑 회원 간의 소통과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당시로서는 규모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2002년 키아프 출범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화랑협회의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 작가들의 부각,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획기적인 성장, K-문화 시장의 확산에 힘입은 바도 있습니다.

'2024 키아프서울'는 국내갤러리 132개, 해외 74개, 총 22개국에서 207개 갤러리가 참가하였습니다.

Frieze는 영국을 기반으로 프리즈 매거진이라는 현대미술잡지로 시작하여 2003년 런던에서 첫 번째 프리즈 아트페어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부터 고전, 근대, 20세기 초의 작품을 마스터즈섹션으로 아우르며 현대 미술 시장의 규모를 확장 시켰고, 프리즈로스앤젤러스에서는 미술과 엔터테이먼트의 융합을 시도하는등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아트페어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프리즈런던 프리즈뉴욕 프리즈로스앤젤러스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 프리즈 서울을 출범시키면서 아시아 전역에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24 프리즈 서울'은 30여 개국에서 110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의 공동 주최의 결과로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대규모의 아트페어가 전개되고 국제적인 컬렉터와 갤러리 관계자들이 서울로 모이면서, 한국 미술 시장은 아시아의 중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술 작품이 단순히 국내에서 보여지는것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 미술 시장의 국제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수준의 컬렉터, 갤러리, 큐레이터들이 한국 미술과 작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작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선 작품이 거래되는 미술 장터로 부상하며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스팟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국 작가들은 더욱 주목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에 해외 큐레이터와 비평가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세계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이룩한 성과를 주목했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미술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해 얻어진 결과물로 부각 되는 작가는 이우환 박서보 이배 양혜규 등으로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바젤, 아트바젤홍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갤러리, 디지털 미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객층과 소통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다양한 국가의 컬렉터와 관객들에게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갤러리 역시 같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진위 감정과 가격의 투명성은 미술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입니다. 한국미술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투명성과 공정성은 갤러리와 작가들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미술가 단체에서 책정한 작가별 호당가격은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불법 미술품유통업자에게 도용,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작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미술품의 가격 역시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격차가 있음으로해서 갤러리와 컬렉터 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미술 시장은 신뢰를 잃고 위축됩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곧바로 경매시장으로 진출 하는 경우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작품가격이 작가를 저울질하는 척도로 보여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며 경매라는 특성상 가격변동이 크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미술시장이 글로벌 컬렉터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 경로로 거래되는 작품가격이 공인된 자산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투명성, 공정성을 꼽아봤습니다.

Kiaf와 프리즈의 공동개최는 한국 미술 시장과 한국 작가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미술은 국제적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고, 한국 작가들은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갤러리와 작가들 모두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춘 전략적 변화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미술이 국제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주 미술기행

-박대성 작가님 작업실 탐방-

손다운





◀ 박대성 작가





3월 말,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 한국회화회 주관으로 경주 미술기행을 떠났다. 이번 기행에는 한국회화회 회원 외에도 많은 미술애호가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일정은 경주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엑스포공원과 솔거미술관에서 진행된 소산 박대성 작가님의 '소산수묵 : 개방과 포용'전시 관람으로 이어졌다. 전시는 박대성 작가님의 수묵화 업적과 그의 화업이 동시대 미술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하기 위함으로 이루어졌다. 전시장에는 90년대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한데 모여 있었으며, 임서와 소산체를 연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개성이 순강의 분위기를 압도하여 마치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대성 화백은 자유로운 필치로 붓을 운용하기 위해 명필가와 명화가의 먹선을 따라가며 그들의 호흡과 흐름을 배우는 하도 작업(임서, 임모)을 오랜 시간 수행하였고, 현재도 매일 아침 묵상과 임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하도 작업에 사용된얇은 한지가 집채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상한 작품은 한순간의 결과물이 아니며, 작가님께서 오랜 세월 둔히 노력한 결실이다. 이번 미술기행은 한국회화회 작가님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박대성 작가님을 직접 만나고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오래도록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을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한국회화

발 행 인 정미현
편 집 인 정미현
편집위원 손다운, 송화정
발 행 일 2024. 11. 12

Design by 도서출판 디자인북스 063-232-6690

이 책에 수록된 도판과 텍스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도판이나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24 by Korean Painting A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author.

※ 본 전시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